『近思錄』의 구결 연구*

고정의

요약

그 동안 구결 연구는 주로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의 자료들에 집중되어 왔고 조선 중기 내지 후기의 자료들은 별로 주목되지 못하였다. 특히 佛家 자료에 비해 儒家 자료에 대한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글은 이런 의미에서 고려말에 전래되어 儒家의 입문서로 자리잡았던 『근사록』의 이본 중 17세기말 내지 18세기의 儒家 口訣을 보여 주는 이본 5종에 나타난 문자체계와 구결의 표기 양상을 살피고 구결의 목록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근사록』에 나타난 문자체계와 구결 표기 양상은 조선 중기의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각 이본에 사용된 구결자는 57종 80자로 이 중 독특한 것은 '引'과 '丫'이다. 기입된 구결토는 이본별로 200여 개로 모두 995개에 이르나 중복형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447개에 이른다. 구결토의 표기상의 특징은 조사류와 어미류에 따라 이본별로 차이를 보여 준다. 부록에 실린 구결 목록은 이 시기의 유가 구결의 모습을 조감하고 보다 이른 시기나 이후의 구결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핵심어: 근사록, 구결, 유가구결, 구결자, 구결토, 문자체계

---

* 본고는 2003학년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서론

근래 角筆口訣이 발견되기 전까지 구결에 대한 연구는 주로 釋讀口訣 자료를 비롯하여 여말·선초의 자료들에 집중되어 왔고[1] 조선 중기 이후의 자료들은 별로 주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구결 자료들은 儒·佛家에 걸쳐 많은 양이 쌓여 있고 앞으로 정리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데 그 동안 논의된 자료들은 거의 佛典들이어서 儒書의 구결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동안 이루어진 儒書의 구결에 대한 연구 업적으로는 崔範勳(1972, 1979, 1982), 安秉禧(1977), 洪允杓(1986), 南權熙(1999) 등을 들 수 있다. 崔範勳(1972)는 필사본 『論語』(1788년 필사)와 『語·庸·學正文』(1905년 필사)에 나타난 略體記入吐(148종)의 讀音과 原字가 정리된 선구적 업적이고, 崔範勳(1979)와 崔範勳(1982)는 『孟子集註』의 混成口訣과 『書釋』의 特殊口訣에 대한 논의다. 安秉禧(1977)은 儒書의 구결만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15, 16세기 인쇄토 刊本들과 임란 이전의 기입토 자료[2]를 대상으로 구결자의 문자체계와 그 용법을 밝힌 것으로 이 시기의 順讀口訣의 구결자의 종류와 표기법의 윤곽을 보여준다. 洪允杓(1986)은 19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小學諸家集註』에 실린 省劃吐와 독음 자료를 다룬 것으로 171개의 구결토가 실려 있어 이 시기의 經書口訣의 모습을 보여 준다. 南權熙(1999)에서는 임란 이후의 儒書 22종[3]과 佛書 10종의 서지를 밝히고 각 문헌의

1) 그 동안 이루어진 구결 연구의 성과에 대하여는 졸고(2004) 참조.

2) 刊本 資料는 書傳大文(乙亥字本), 地藏菩薩本願經, 童蒙先習, 童蒙須知, 朱子增損呂氏鄕約諺解, 正俗諺解, 重刊警民編諺解, 書傳大文(頭註本), 周易大文, 詩正文 등 10개이고, 記寫資料는 心經附註, 誡初心學人文, 六祖大師法寶檀經 등 3개이다. 각 문헌의 서지와 성격은 안병희(1977:35-50) 참조.

3) 儒書類는 警民編, 曲禮幼肆, 達道集註大全十二則, 道里圖標, 童蒙先習, 東醫壽世保元, 童子必習, 孟子諺解, 慕庵家塾新刊四蒙輯要, 書傳正文, 素問句讀俗

구결자를 정리함으로써 유·불가별 사용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儒家 口訣의 문자체계와 구결토의 표기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 내지 18세기의 儒家 口訣 자료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글은 이런 관점에서 고려말에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儒家의 필독서로 자리잡았던 『近思錄』 중 17세기 후반 내지 18세기의 구결을 보여주는 이본 5종에 나타난 구결 표기의 특징과 표기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 자료에 나타난 구결의 문자체계와 구결토의 목록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근사록』의 이본과 자료적 성격

『근사록』은 宋의 유학자인 朱熹와 呂祖謙이 朱敦頤, 程顥, 張載, 程頤 등의 저서에서 修身, 齊家, 治國 등 일상 수양에 긴요한 사항 622條를 따서 이것을 14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엮은 성리학의 입문서다. 그러나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이본들은 모두 14권 4책으로, 권두에 葉采의 近思錄集解序와 進近思錄表 그리고 朱熹와 呂祖謙의 序文이 실려 있고 본문과 주해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써 이 책들은 권두서명은 『近思錄』이나 실제로는 淳祐 12년(1252) 建安의 葉采가 『近思錄』에 註解를 붙여 펴낸 『近思錄集解』임을 알 수 있다.

『근사록』은 고려에 전래된 이래 많은 이본[4]들이 간행되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책들은 다음의 이본 5종으로 이들의 간략한 서지사항

解,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小學諸家集註, 醇言, 詩傳正文, 禮記集說大全, 增註三字經, 通鑑口訣, 學語, 訓蒙編集, 訓義小學講誦 등이다. 각 문헌에 대하여는 남권희(1999:447-490) 참조.

4) 근사록의 이본에 대하여는 강순애(2002) 참조.

은 아래와 같다.[5)]

1) 강순애 교수 소장본(약호:강순애본/강)
初鑄甲寅字本. 刊行年 世宗 18年(1436). 四周雙邊. 半郭 26.0×16.7. 有界 半葉 9行 18字. 註雙行. 上下下向黑魚尾. 版心題 近思錄. 34.0cm ×20.5cm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약호:국도본(가)/국(가)) (한 古朝16-7)
木版本. 刊寫地·刊寫者 未詳. 刊行年月 1687年. 14卷 4冊. 四周雙邊. 半郭 23.5×17.0cm. 有界 10行 17字. 註雙行. 版心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33.4x22.3cm. 版心題 近思錄.
內賜記 : 康熙26年 內賜戶曹判書李敏敍

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약호:국도본(나)/국(나))(일산貴 1571.5 1-14)
木版本. 時代 未詳, 14卷 4冊. 四周雙邊, 半郭 27.8×18.6cm. 9行 18字. 註雙行. 黑口 內向三葉花紋魚尾. 版心題 近思錄. 37.0×23.0cm.
刊記 : 正統元年 六月 日 印出.

4) 울산대학교아산도서관본<약호:아산본/아>
木版本. 年代 未詳. 14卷 4冊. 四周雙邊 半郭 29.4×19.0cm. 有界 半葉 10行 18字. 註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版心題 近思錄. 38.4cm ×24.5cm

5) 고대도서관본(약호:고대본/고)(만송 C1 A79S 1-4)
戊申字本. 顯宗 13(1672), 四周雙邊. 半郭 24.7×17.0cm. 有界 半葉 10行 17字.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35.0×22.3cm.
內賜記 : 康熙十一年 八月 十六日 內賜假注書金聲久[6)]近思錄 一件 命除謝 恩. 右承旨 臣 金 [手決]

---

5) 국립도서관본은 영인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서지는 도서관의 간략서지를 참고로 한 것이다.

6) 金聲久는 조선 후기(1641(인조 19)~1707(숙종 33))의 문신으로 본관은 義城이며 호는 八吾軒 또는 海村이다. 166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좌승지·강원도관찰사·병조참지 등을 거쳐 호조참의를 역임하였다. 저서로 『八吾軒集』이 있다.

이들 중 '강순애본'과 '국도본(가)' 및 '고대본'은 간행 연대가 밝혀져 있으나 '국도본(나)'와 '아산본'은 연대 미상이다. 그러나 이들의 서지와 구결의 양상으로 보아 17세기 자료로 추정되므로 17·18세기의 구결 자료로 함께 다루기로 한다.

이들 이본에는 모두 구결이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이본에 따라 구결 기입 양상은 차이를 보여 '강순애본'과 '국도본(가)'은 序와 表 및 본문에 모두 구결이 달려 있고 나머지 이본들에는 본문에만 구결이 달려 있다. 그런데 강순애 교수 소장본[7]은 권1에서 권5까지만 구결이 기입되어 있다. 이 책은 간년이 세종 18년(1436년)이어서 15세기의 유서 구결의 모습이 기대되지만 기입된 구결은 16세기말 이후의 언어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아산본'은 연대 미상의 후쇄본으로 4장(13권 8·9장, 14권 1·2장)이 낙장인데 권말에 金汶의 跋이 실려 있다. 각 이본에는 거의 左吐가 달려 있지 않은데 '아산본'은 左吐가 상당히 많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고대본'은 현종 13년(1672)의 內賜本인데 권2의 제17장은 낙장으로 필사 보입되어 있다. 난상에 일부 어구에 대해 "一般ᄒᆞᆫ가지猶言一種也又ᄒᆞᆫ갓(語錄)(6:3ㄱ)"과 같은 형식으로 『語錄解』에서 인용된 어휘로 주석을 달아 놓아 구결을 단 시기를 짐작게 한다. 그런데 이 책은 권14 말미에 "此吐愚伏鄭先生所懸轉輾傳寫之際似不無誤寫處而無由校考是可歎也丙辰二月二十一日謹識"라 기록되어 있어 이 책의 구결이 愚伏 鄭經世[8]에 따른 것으로 기입 연대가 17세기 후반 내지 18세기[9]임을 보여 준다. 구결 자료에서 구결의 저자가

---

7) 이 책은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강순애 교수 소장본으로 세종 18년(1436)의 갑인자 초간본이다. 귀중한 자료(복사본)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강순애 교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8) 鄭經世는 조선 중기(1563(명종 18)~1633(인조 11)의 문신·학자로 본관은 晉州고 호는 愚伏이다. 유성룡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586년 승문원부정자를 시작으로 형조판서·예조판서·이조판서·대제학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愚伏集』·『喪禮參考』·『朱文酌海』가 있다.

밝혀진 것은 그 가치가 큰 것이다. 이로 보면 이 책에 달린 구결은 당대의 전형적인 유가 구결을 보여 주는 것으로 기대되는데 오랫동안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0]

『근사록』은 이른 시기부터 많은 이본들이 간행되었으나 구결 자료로서 아쉬운 것은 이른 시기의 구결을 보여 주는 자료가 별로 보이지 않고 혹 구결이 달려 있는 것도 후대의 구결이 소략히 달려 있어[11] 선초의 자료로서 가치를 보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3. 문자체계와 표기 양상

3.1. 문자체계

이 글에서 다룬 『근사록』 5종에 기입된 구결토는 모두 995개이다.[12] 이본별로는 '강순애본' 217개, '국도본(가)' 209개, '국도본(나)' 200개, '아산본' 248개, '고대본' 121개로 '아산본'이 가장 많다. '강순애본'은 구결이 달려 있는 권수(권1-권5)에 비하여 많은 구결 형태를 보여 준다. 이에 비하여 '고대본'은 계사의 활용시 '丶ᄆᆞᆫ'와 '丶ᄆᆞᄒᆞ' 이외에는 모두 어간 '丶-'가 생략되어 다른 자료에 비해 훨씬 적은 용례만을 보여 준다.

---

9) '丙辰'은 1676년, 1736년 또는 1796년에 해당된다.

10) 고대 도서관의 또 다른 자료(「만송C1A79K」)는 순조 26년(1826년)에 간행된 것인데 권14 말미에 "此吐卽愚伏鄭先生所懸"이라 주기되어 있어 19세기 전반기에도 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1) 예컨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중 木板本(覆刻)(공민왕 19년. 1370년. 청구기호:한貴古朝16-84)에는 권1에만 후대의 구결이 달려 있다. 영인 상태가 극히 좋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는 전연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다.

12) 이 중에는 '口/古', '尹/那', 'ㅅㄱ/ㅅ也', '氐/底/氏/广' 등과 같이 이체자나 'ㅅㅅ又ㄴ, 曰ㅅㅅㄴ, ㅅㄴㄴㅅㅅㄹㅁ'와 같이 구결 결합형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강순애본'의 경우 나타난 구결 수는 모두 217개지만 단순히 구결자만 다른 형태들을 동일형으로 정리하면 183개에 이른다.

각 이본에 나타난 구결토의 구결자 수에 따른 분포를 보면 1자류가 146개, 2자류 296개, 3자류 309개, 4자류 167개, 5자류 63개, 6자류 14개로 1자류에서 6자류까지로 나타나는데 이 중 3분의 2가 2자 혹은 3자로 구성된 것이어서 이 시기에 이만큼 토가 정형화되고 단순화되었음을 보여 준다.[13]

각 이본에 나타난 구결은 995개지만 이것은 중복된 형태가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구결형별로 정리하면 실제로 각 이본에 나타난 구결형은 447개다. 이본별 구결 수가 대체로 200여 개인데 구결 수가 447개에 이른 것은 이본별로 그 자료에만 나타나는 구결들이 많기 때문이다. 각 이본에 나타난 유일형은 '강순애본'에 57개, '국도본(가)'에 41개, '국도본(나)'에 40개, '아산본'에 70개, '고대본'에 19개 등이다. 이 중에는 동일한 구결의 異表記도 포함되었으므로 실제로 이들 자료에 나타난 구결형은 400여 개를 넘지 못한다. 이 중 이본별로 특징적이거나 중요한 구결을 몇 개씩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1. 乙士ㅅ, 今ㅅ, (ㅅ)ㅜ卩, 阿卩, 也, 尸乙, 今ホ卩, (ㅅ)今寺ヒ, 乙五, ㅅ士ヒㅅ, 印刀大, 巨大, 尸, ソ大, ソㅜ卩, ソ寺古, ソ卩地(강순애본)

2. 巨卩ケ卩, 口ㄱ未, 女, 氏, 汝ㅅ, 阿ㄱ未, 牙卩, 卜乙, ㅅ也, 乎卩地, ㄱ卩弋, ソつ卩地(국도본(가))

3. 月卩亦, 尸寸ㅅ夕, 牙ノ未, 言丫卩, ㅅホヒ, ノㅅ夕, ノ卩氏, ソ卩氏(국도본(나))

4. 口ソ未, ホ牙, 阿ソホ, 今乃, 今牙, 乙可ソ又ㅅ夕, ㅅ牙, ㅅ卩, 引大, ㄱ卩之, ソヒ卩, ソ又卩之, ソ小西, ソ也ヒ卩, ソ卩, ソ卩之(아산본)

---

13) 『소학제가집주』에는 7자결합형 1개, 6자결합형 4개가 실려 있고 남경란(2001)에는 9자결합형도 몇 개 보인다.

5. 阿也, 阿ㄴㄱ, 乎下弋, 曰ㅅ叱古, ㄴ申大, 乎曰ㅅ(고대본)

각 이본에 나타난 문자체계는 자료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이본별 구결자는 이체자를 포함하여 '강순애본'에 65자, '국도본(가)'에 61자, '국도본(나)'에 46자, '아산본'에 55자, '고대본'에 50자 등이 사용되었다. 이들 자료에 나타난 구결자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14]

(2) 可 口 古 果 巨 下 ㄷ 尹 女 ㄷ 夕 大 代 弋 力 加氐 底 广 氏 丁 刀 斗 豆 地 ホ 月 乙 ㅅ 汝 戶 又 曰里 ㄱ 馬[15] ホ 广 面 未 叱 沙 少 全 西 所[16] 小 寸 寺 申 士 丫 阿 牙 厂 つ 也 今 言 言 ホ 五 罡 卜 臥 ム 矣 引 印 之 ノ 宀 屎 尸 ㄴ

이들은 대부분 아래 (3)의 조선 중기 이후의 유서에 나타난 구결자(남권희 1999)[17]와 일치하고 '氏, 丫, 牙, 言, 引, 尸' 등만이 자형상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들도 구결자의 자형을 고려하면 이 중 '引'과 '丫'가 독특할 뿐이다.

(3) 可 去 巨 口 古 果 ㄱ 下 隱 乃 尹 卿 女 又 奴 ㄷ 泥 尼 ㄷ 飛 論/侖, 夕 多 ナ 大 ㄴ(대) 力加氐 广 底 丁 刀 都 斗 豆 入 地 知 ホ 等 月 弋 代 乙 丶 ㅅ 眾 羅 難 汝(러) 女(러) 驢 論 曰里 戶

14) 'ㄷ'와 'ㄷ', 'ㄷ'와 'ㄷ'는 자형상 구분할 수도 있으나 '아산본' 외에는 자형이 획일적이지 못하여 구분하지 않았다.

15) '馬'는 마지막의 획 '灬'가 생략된 형태로 쓰인 것인데 편의상 '馬'로 표기한다. 이하 용례의 경우도 동일하다.

16) '所'의 자형은 정해체가 아닌 행서체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편의상 정해체로 제시한다.

17) 이 목록은 남권희(1999)에 제시된 23종의 유가류 문헌의 구결자를 필자가 종합한 것인데, 이 중에는 동일 구결자가 다른 음으로 전용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러) 乂 ㄅ 馬 馬[18] 尸 厶(며) 尒 尒 旀 弥 彌 一(면) 丆 面 未 叱 沙 少 人 全 舍 西 所 小 寸 時 申 士 旧 兒 氵 阿 安 厂 厓 つ 也 今於 於丶(에) 言 亠 亦 汝(어/여) 女 予 午 五 盈 溫 卜 臥 為 ㄋ 衣 厶 矣丶 是 伊 印 人 日 之 只 地 土 何 丿 ㄎ 乎 忽 屎 丶 爲 屎

'丫'자는 '국도본(나)'에서만 쓰인 것인데 구결 자료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강순애본'에 쓰인 '尸'와 '寺', '국도본(나)', '아산본', '고대본'에 쓰인 '盈'도 주목된다. '尸'의 용례는 한 개에 불과하지만 '屎'의 약체자로 사용되고 있다. '寺'는 '寸'와 異體 관계다. '盈'은 佛書에서는 '溫'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儒書에서만 나타난 형태다(남권희 1999). '月'은 남권희(1999:560)에서 불가류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외에 '广'와 '氏'가 '氐, 底'와 더불어 이체자로 나타나고 '乃'가 '尹, 那'와 함께 쓰였으며 '아산본'에 쓰인 '馬'는 마지막의 획 '灬'가 생략된 형태로 쓰인 것이다. 구결자 중에는 정해체와 약체자들이 함께 쓰이는 예들이 많이 보이고 동일음의 표기에 사용된 구결자가 이본에 따라 다른 경우도 보인다. '호'의 경우 '국도본(나)'에서는 '丿', '아산본'에서는 'ㄎ'만 쓰였고 나머지 이본들에서는 '乎, ㄎ, 丿' 중 두 개 혹은 세 개가 혼용되고 있다.[19]

위에 제시된 구결자들의 이본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가나	독음	구결자	강순애본	국도본(가)	국도본(나)	아산본	고대본
1	가	可	o	o	o	o	o
2	고	口	o	o	o	o	o
		古	o	o		o	o
3	과	果	o	o	o	o	o
4	거	巨	o	o	o	o	o

18) 이 구결자는 마지막의 획 '灬'가 생략된 형태로 쓰인 글자이다.

19) 이본별 구결자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ㄎ/丿(강) ㄎ/乎/丿(국(가)) 丿(국(나)) ㄎ(아) 乎/ㄎ(고)

가나	독음	구결자	강순애본	국도본(가)	국도본(나)	아산본	고대본
5	ㄴ	乁	o				
		尸	o	o	o	o	o
6	나	尹	o	o	o	o	o
		那	o				
7	니	匕	o	o	o	o	o
8	ㄴ	匕	o	o	o	o	o
9	다	夕	o	o	o	o	o
10	대	大	o	o	o	o	o
		弋	o	o	o	o	o
		代	o				
11	더 더	力	o	o	o		
		加	o			o	o
12	도	刀	o	o	o	o	o
13	두	斗	o	o	o	o	
		豆	o				
14	돈	朩	o	o	o	o	o
15	돌	月	o	o	o	o	
16	ㄹ	乙	o	o	o	o	o
17	라	丬	o	o	o	o	o
18	러	汝		o			
		戶	o	o	o	o	o
19	로	又	o	o	o	o	o
20	리	曰	o	o	o	o	o
		里	o				
21	마	尸	o	o			o
		丫			o		
		馬				o	
22	며	朩	o	o	o	o	o
23	면	丆	o	o	o	o	o
		面	o				
24	미	未		o		o	
25	人	叱	o	o	o	o	o
26	사	沙	o	o	o	o	o
		少	o		o		
27	샤	舍	o	o	o	o	o
		人		o			
28	셔	西				o	
29	소	所	o	o		o	o

가나	독음	구결자	강순애본	국도본(가)	국도본(나)	아산본	고대본
30	쇼	小				o	
31	시	寸	o	o	o	o	o
		寺	o				
32	신	申					o
33	스	士	o	o	o	o	o
34	아	阿	o	o		o	o
		牙	o	o	o	o	
35	애	厂	o	o	o	o	o
		厓	o				
36	야	つ	o	o	o	o	o
		也	o	o	o		o
37	어	今	o	o	o	o	o
38	언	言		o			
		言	o	o	o	o	o
39	여	亦	o	o	o	o	o
		女	o	o		o	
40	오	五	o	o	o	o	o
41	온	盈		o		o	o
42	와	卜	o	o	o	o	o
		臥	o				
43	의	ム	o	o	o	o	
		矣	o	o			o
44	이	丶	o	o	o	o	o
45	인	引				o	
		印	o	o			
46	져	氐		o	o		
		底	o			o	o
		广	o			o	o
		氏		o			
47	졍	丁	o	o	o	o	o
48	지	地	o	o			o
		之				o	
49	호	ノ	o	o	o		
		勹	o	o		o	o
		乎		o			o
50	히	屎	o	o	o	o	o
		尸	o				
51	흔	ソ	o	o	o	o	o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이본에 나타난 구결자는 자형상으로 모두 80개이다. 그러나 하나의 차자가 둘 이상의 자형으로 쓰인 것이 있어 실제 사용된 차자는 59종이다. 이를 구결자의 표기 양상에 따라 유형별[20]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해체와 약체가 함께 쓰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이 16종에 35개의 자형이 사용되었다.

(4) 古/ㅁ, 那/尹, 代/弋, 加/力, 底/氐/氏/广, 里/曰. 面/丆. 沙/少, 阿/牙, 厓/厂, 也/つ, 言/訁, 臥/卜, 矣/厶, 乎/ㄎ/丿, 屎/尸

이 중 마지막의 '屎/尸'의 '尸'는 아래 예에서와 같이 '강순애본'에 오직 한 번 쓰인 것이다.

(5) 1. 如百尺之木丶 自根本至枝葉尸 皆是一貫丷(강.1:18ㄱ)
2. 如百尺之木丶 自根本至枝葉屎 皆是一貫丷(국(가).1:17ㄱ)/丶丷(국(나).1:18ㄱ)

위에서 '尸'은 현토된 문장 "'自……以至……"의 구조나 다른 자료의 기입토로 보아 '屎'에 대응되는바 자형상 '屎'의 약체자로 추정된다. 다만 '尸'가 구결 자료에서 '屎'의 약체로 쓰인 다른 용례들을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동일한 차자의 약체가 두 개 이상 다른 형태로 쓰인 것으로는 다음 4종이 보인다.

(6) 氐/广/氏, 寸/寺, 卩/刀, 仝/人, 丿/ㄎ

이들 약체자는 이본에 따라 각각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 '氐, 广,

20) 字形에 따른 구결자의 분류 방식은 남풍현(1990, 1995) 참조.

氏'는 '底'의 약체자로 '𠂢'와 '𠂢'는 '국도본(가)·(나)'에 그리고 '底'와 '广'는 '강순애본', '아산본', '고대본'에만 사용되었다. 이 중 '氏'는 '𠂢'의 밑의 획이 생략된 형태로 흔히 보이지 않는 구결자다. '寸/寺'의 '寺'는 '時'의 오른쪽을 딴 것으로 흔히 '寸'로 쓰이는 것인데 '강순애본'에서만 두 번(今寺ㄷ, 1:10ㄴ, ㅅ寺古, 2:1ㄱ) 나타나고 있다. 'ㄗ/ㄱ' 중 'ㄱ'는 '강순애본'에 두 번(ㅅㄱ太. 1:19ㄱ, 2:28ㄴ) 나타나고 '全/ㅅ' 중 'ㅅ'는 '국도본(가)'에 한번(ㅅㅅ弋. 1:14ㄴ) 용례가 보일 뿐 그 외에는 각 이본에서 'ㄗ'과 '全'가 쓰이고 있다. 'ㅅ'와 'ㄎ'는 '강순애본'과 '국도본(가)'에서만 함께 나타날 뿐 '국도본(나)'에서는 'ㅅ', '아산본'과 '고대본'에서는 'ㄎ'가 쓰이고 있다.

셋째, 동일한 음을 표기하는 데 이체자나 상이한 구결자나 구결형이 사용된 것들[21]로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7) 1. 두 : 斗, 豆
2. 러 : 尸(<尸ㅅ), 汝(<汝ㅅ), 今ㅅ.
3. 로 : 又(<乙又), 五(<乙五)
4. 마 : ㄗ(<言ㄗㄗ), ㄚ(<言ㄚㄗ), 馬(<言馬ㄗ)
5. 시 : 寸, 士(<ㅅ士ㄷㅅ)
6. 여 : 女, 亦
7. 지 : 地(<ㄎㄗ地/乎ㄗ地), 之(<ㄎㄗ之.)
8. 언 : 言/言(<言ㄗㄗ/言ㄗㄗ), 今ㄗ(<今ㄗㄗㄗ/今ㄗ馬ㄗ/今ㄗㄚㄗ)
9. 신 : 寸ㄗ(<ㅅ寸ㄗ大) , 申(<ㅅ申大)
10. 온 : 盈, 五ㄗ
11. 인 : ㅅㄗ(<ㅅㄗ大), 引(<引大), 印(<印大),

(7.1-7)은 동일한 음의 표기에 상이한 구결자가 사용된 예이고

21) 용례는 동일 문헌의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문헌 안에 해당 예가 없을 경우 다른 자료의 것을 제시하기로 한다.

(7.8-11)은 동일음 표기에 하나의 구결자나 혹은 구결자의 결합으로 표기한 예이다. (7.2)의 '-러라'는 '尸ㅅ'로 표기되었는데 '국도본(가)'에서는 '汝ㅅ'(3:24ㄴ), '강순애본'에서는 'ᄉᆞㅅ'(1:16ㄱ)가 '尸ㅅ'의 대응토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 정해체만 사용되고 약체는 쓰이지 않는 것(所, 未, 地), 약체자만 쓰이고 정해체는 쓰이지 않은 것(盃) 등을 추가할 수 있다.

3.2. 표기 양상

(1) 생략 표기

생략 표기 중 가장 많은 생략은 계사 'ㅅ-'의 생략이다. 계사 'ㅅ-'는 생략과 비생략형이 함께 나타나지만 '고대본'에서는 'ㅅ叱可'와 'ㅅ叱古'의 두 예 외에는 모두 'ㅅ-'가 탈락되어 극단적인 생략을 보여 준다. 이 외에 (8.2-6)에서와 같이 동사 어간 'ᄉᆞ-'나 말음 'ㅁ/ㄱ' 또는 '乙'이 생략되거나 두음의 '叱', 어미나 조사의 말음 'ㅅ'가 생략된 예들이 보인다.

(8) 1. ㅌ/ㅅㅌ, 尹/ㅅ尹, ㅁ大/ㅅㅁ大, 大ㅁ/ㅁ大ㅁ, ㅁ月(국(가).2:7ㄱ)/ㅅㅁ月, ㄱ/ㅅㄱ,
2. 古(국(가)..3:3ㄴ)/ᄉᆞ古, ᄉᆞㅌ/ᄉᆞᄉᆞㅌ, ㅅㅌㅅ/ㅅᄉᆞㅌㅅ
3. ㅅ大ㅁ(아.10:10ㄴ)/ㅅㅁ大ㅁ, ᄉᆞ大(강.2:28ㄴ)/ᄉᆞㅁ大, 巨大(강.1:15ㄴ)/巨ㅁ大, 今馬ㅁ(아.7:9ㄴ)/今ㅁ馬ㅁ
4. ᄉᆞ里士ㅅ(강.2:9ㄴ)/ᄉᆞ曰乙士ㅅ
5. 月ㅁ亦(국(나).2:41ㄱ)/叱月女(강.2:4ㄱ)
6. 亦ㅁ(국(가),2:27ㄴ)/亦ㅅㅁ(국(나).2:29ㄱ), 巨ᄉᆞ小西/巨ㅅᄉᆞ又ㅌ, 巨ㅅ/巨ㅅㅅ

(2) 음의 첨기

음의 첨기로는 두음의 첨기는 보이지 않고 말음이 첨기된 예만 보인다. (9.1)은 'ㅊ'과 'ㅜ'의 말음 'ㄴ', (9.2)는 'ㅂ'의 말음 'ㄹ'이 첨기된 예다. (9.3)은 한자 '卽'의 말음 'ㄴ'을 첨기한 것인데 한자에 말음을 받쳐 적은 것이 독특하다. 모두 '강순애본'에만 나타나고 다른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9) 1. ᄉᆞᄒᆞ/ᄉᆞᄒᆞᄇᆞ(강.서2ㄱ), ᄀᆞ/ᄀᆞᄇᆞ(강.2:12ㄴ), ᄂᆞᄀᆞ/ᄂᆞᄀᆞᄇᆞ(강.2:24ㄴ), ᄂᆞᄀᆞ/ᄂᆞᄀᆞᄇᆞ(강.1:14ㄱ)
2. ᄇᆞ(강.2:19ㄱ)/ᄇᆞᄅᆞ(강.2:7ㄴ)
3. 卽ᄎᆞ(강.1:9ㄱ)/卽ㅣ ᄎᆞ(강.3:12ㄱ)

(3) 대표음의 전용

대표음을 다른 음의 표기에 전용한 예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먼저 'ᄇᆞ'가 '어'음의 표기에 전용된 예를 들 수 있다. (10.1)과 (11.1)에서 'ᄇᆞᄅᆞ'은 다른 자료와의 비교에서 'ᄉᆞᄅᆞ'과 같은 구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용은 널리 나타나지 않는다.

(10) 1. 且彼欲使人ᄒᆞᆫ 推而行之ᄂᆞᄒᆡ 本爲用也ᄇᆞᄅᆞ 反謂不及ᄂᆞᄒᆡ(강.2:37ㄱ)
2. 且彼欲使人ᄒᆞᆫ 推而行之ᄂᆞᄒᆡ 本爲用也ᄉᆞᄅᆞ 反謂不及ᄂᆞᄒᆡ(아.2:37ㄱ, 고.2:36ㄴ)

(11) 1. 言忠信行篤敬ᄀᆞ 雖蠻貊之邦ᄋᆞᄀᆞ 行矣ᄇᆞᄒᆞᄐᆞ(강.2:19ㄱ)
2. 言忠信行篤敬ᄀᆞ 雖蠻貊之邦ᄂᆞᄋᆞᄀᆞ 行矣ᄉᆞᄒᆞᄐᆞ(아.2:19ㄱ, 고.2:18ㄱ)

어미 '巨'가 'ㅅ-' 뒤에서 유기음으로 축약된 예로 다음 예가 보인다.

(12) 巨ㅠㅏㅠ, 巨乙, 巨ㅅ小西, 巨大/巨ㅠ大, 巨ㅅㅠ大ㅠ/巨ㅅㅠ大ㅠ, 巨ㅅㅅ又ㅌ, 巨ㅅㅅ力寸夕/巨ㅅㅅ加寸夕 巨ㅅㅅ又ㅌ, 巨ㅅㅅ力寸夕/巨ㅅㅅ加寸夕

'ㄹ'음과 'ㄴ'음이 혼용되어 전용된 예로는 구결 표기에서 잘 알려진 '又'와 '乙'의 예가 있다. (13.1)은 'ㄴ'이 'ㄹ'로 전용된 예이고 (13.2)는 'ㄹ'이 'ㄴ'으로 전용된 예다.[22]

(13) 1. (ㅅ)又夕, 又弋, 又刀, 又所ㅅ夕, 又ㅠ, 乙又(국(나).1:7ㄱ, 아.1:4ㄱ)
2. (ㅅ)今乙, 巨乙, ㅁㅅㄱ乙, ㅅ今寸乙, ㅅㅅㄱ乙(아.4:3ㄴ)

이러한 전용은 구결에서 흔히 나타났던 것인데 'ㅅㅅㄱ乙'의 '乙'이 'ㅅㅅㄱㅌ乙'(아.11:2ㄱ)과 같이 'ㅌ乙'로 표기된 예도 보이고 아예 'ㅅㄱㅌ'(국(가).1:14ㄱ, 국(나).14:12ㄱ, 아.5:11ㄴ)과 같이 'ㅌ'로 표기된 예도 보인다. 이것은 '놀/늘'음의 표기를 충실히 하려는 일종의 표기상의 동요를 보여 주는 것이다.

말음탈락에 따른 전용의 예로는 (14.1)과 같이 'ㅗㅅ'의 말음 '-ㅅ'가 탈락되거나 (14.2)와 같이 '月(돌)'의 말음 'ㄹ'이 탈락된 예를 들 수 있다.

(14) 1. ㅅ寸乙ㅗ/ㅅ寸乙ㅗㅅ, ㅅ乙ㅗ/ㅅ乙ㅗㅅ
2. 月ㅠ亦, 叱月女

마찰음 'ㅅ'이 파찰음 'ㅈ'으로 전용된 예로 'ㅅ寸乙ㅗㅅ'의 'ㅗ'가 보

22) '乙'이 '놀'의 표기에 쓰인 것은 '롤'음의 표기에 전용된 '乙'이 다시 이를 바탕으로 '놀'음의 표기에 전용된 것이다(남풍현 1990:96).

인다. 'ㅅㅜ乙ㅗㄴ'는 다음 예에서 보듯 'ㅅㅜ乙#ㅗㄴ'의 구성으로 시간 명사 '제'를 표기한 것이다.

(15) 1. 程子(ㄴ) 葬父厂 使周恭叔(乙)又 主客(ㄴ)尸ㅜㅌ(국(가)·국(나)·아.6:5ㄴ)
2. 程子ㄴ 葬父ㅅ乙ㅗㄴ 使周恭叔主客尸ㅌ(고.6:5ㄴ)

(16) 1. 謝湜ㄴ 自蜀之京師ㅅ乙ㅗㄴ 過洛而見程子ㅅㅠ大(국(가)·국(나)·아.7:11ㄴ)
2. 謝湜 自蜀乙又 之京師ㅅ乙ㅗㄴ 過洛而見程子今乙(고.7:11ㄱ)

대표음의 전용과 관련하여 '국도본(가)'를 제외한 각 이본에 모두 나타난 '코'(5:4)는 매우 흥미롭다. 유기음 '코'는 종래 'ㅁ'로 전용 표기되던 것인데 한글로 달려 있기 때문이다. '코'를 표기할 적절한 방안이 모색되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17) 晉之上九厂 晉其角ㄴㅌ 維用伐邑ㄴㅜ 厲ㅅㅓ 吉코 无咎今ㅌㅏ 貞ㄴㅜㅠ 吝ㅅㅌㅅㅅㅋ乙(5:4)

4. 표기상의 특징

4.1. 조사 표기의 특징

격조사의 표기 양상은 조선 중기 이후의 구결 표기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본에 따라 나타난 표기 양상 중 특징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조사 중 조격 조사로는 '又'와 '乙又'가 쓰였는데 '고대본'에서는 '又', '국도본(나)'와 '아산본'에서는 '乙又'만 사용되어 표기 양상이 달랐음을

보여 준다. '乙又'의 이표기로 '강순애본'에 한 번 '乙五'가 나타난다.

(18) 四時合其序ㅅ ᄒᆞ 鬼神乙五 合其吉凶ㅅᄉᆞᄒᆞᄆᆡ(강.1:4ㄱ)

처격 조사 'ㄱ, ᄉᆞᆷㅅ, ᄒᆞᆷㅅ'는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엄격히 구별되지는 않았으나 '고대본'에서는 엄격히 구별되었다.[23] 'ᄒᆞᆷㅅ'는 아래 예와 같이 'ㅅ'가 생략된 'ᄒᆞᆷ'의 형태로 쓰인 예도 보인다.

(19) 1. 居陋巷ㅅ 在顔子之時ᄒᆞᆷ 爲中ㅅ五 若三過其門不入則非中也ㅅ ᄒᆞᄉᆞ(아.1:17ㄱ)
2. 知之ᄒᆞᆷ 必好之ㅅᄒᆞᆷ 好之ᄒᆞᆷ 必求之ㅅᄒᆞᆷ 求之ᄒᆞᆷ 必得之ᄒᆞᄆᆡ (아.2:22ㄴ)

처격 표기도 문헌에 따라 차이를 보여 준다. '강순애본'의 경우 'ᄉᆞᆷㅅ (3:15ㄴ)'는 단 한 번 쓰이고 모두 'ㄱ'[24]로 나타날 뿐 'ᄒᆞᆷㅅ'는 전연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국도본(나)'에서는 'ㄱ'와 'ᄒᆞᆷㅅ'만 사용되고 'ᄉᆞᆷㅅ'는 전연 쓰이지 않았다.

처격 조사 'ㄱ, ᄒᆞᆷㅅ'는 뒤에 다른 형태소가 부가되어 쓰인 예들이 있다. 'ㄱ刀, ㄱ沙/ㄱ少, ㄱ也, ㄱㅁ', 'ᄒᆞᆷㅁ, ᄒᆞᆷㅅㅁ' 등. 그러나 'ᄉᆞᆷㅅ'의 경우에는 어떤 결합형도 보이지 않는다. '고대본'에 한글 로 '엔'(5:4ㄱ)이 한 번 달려 있을 뿐이다. 이것은 'ᄉᆞᆷㅅ'에 주제를 나타내는 'ㅁ'이 부가된 표기 방식에 대한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20.1)에서와 같이 '강순애본'에서는 'ㄱㅁ'의 대응형으로 '阿ㅁ'이 쓰인 예가 하나 보인다. 그러나 '阿'가 독자적으로 처격으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는다.

---

23) 예외로 '三學條制ㄱ(9:5ㄱ)'의 예가 있다.
24) 'ㄱ'가 정해자 '厓(강.2:11ㄱ)'로 쓰인 예도 보인다.

(20) 1. 今之爲學者ㅅ 如登山麓ㅅㄱ 方其迤邐阿ㅁ 莫不闊步ㅅㅌ可(강. 2:22ㄱ)
2. 今之爲學者ㅅ 如登山麓ㅅㄱ 方其迤邐厂ㅁ 莫不闊步ㅅㅌ可(국(나). 아.2:22ㄱ)

그런데 'ㅅ'가 (21.1)에서와 같이 처격의 자리에 쓰인 예가 보여 흥미롭다. 이것은 문맥상 다른 자료의 '厂'에 대응하므로 'ㅎㅅ'의 잘못으로 보인다. 그러나 (22.1)의 '後世ㅅㅁ'과 같이 '아산본'에서는 'ㅅ'에 주제 보조사 'ㅁ'이 통합된 형태도 보인다. 이것은 다른 자료에서는 '厂ㅁ'(국(가), 국(나)), 'ㅁ'(고.8:10ㄱ)으로 나타나고 있다.

(21) 1. 後世ㅅ 以史ㅈ 視春秋ㅅㄱ 謂褒善貶惡而已ㅇㅅㅇㅁ(국(나).아.3: 22ㄴ, 고.3:21ㄴ)
2. 後世厂 以史ㅈ 視春秋ㅅㄱ 謂褒善貶惡而已ㅇㅅㅇㅁ(강.국(나).3: 22ㄴ)
(22) 1. 先王之世ㅎㅅ 以道ㅈ 治天下ㅍㅌ 後世ㅅㅁ 只是以法乙ㅈ 把持天下ㅌㅇ(아8:10ㄱ)
2. 先王之世厂ㅁ 以道ㅈ 治天下ㅍㅌ 後世厂ㅁ 只是以法乙ㅈ 把持天下ㅌㅇ(국(나).8:10ㄱ)
3. 先王之世ㅎㅅ 以道ㅈ 治天下ㅍㅌ 後世ㅁ 只是以法把持天下ㅌㅇ(고.8:10ㄱ)

이른바 집단곡용시 마지막의 공동격 조사 'ㅏ'와 결합된 조사결합형으로 '국도본(가)'에 'ㅏㄹ' 한 예가 보일 뿐 다른 격조사와 통합된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23) 坎之六四厂 曰 樽酒ㅏ 簋貳ㅏㄹ 用缶ㅇㅁ 納約自牖ㅜ 終无咎ㅇㅁㅇㅅ(국(가).10:4ㄴ)

호격 조사로는 영탄의 호격에 'ㅎ'와 'ㅊ'가 쓰였다. 일반적 호격의 용례는 자료의 성격상 나타나지 않는다.

(24) 1. 大哉ㅅ 易也ㅎ 斯其至矣ㅈㅏ(강.1:5ㄴ, 아.1:5ㄴ)/ㅂㅅ(고.1:5ㄱ)
2. 大哉ㅅ 易也ㅊ 斯其至矣ㅈㅏ(국(가).1:5ㄱ)
(25) 堂堂乎張也ㅎ 難與並爲仁矣ㅅㆍㅂㅅ(국(가).5:13ㄱ)

보조사 중에는 'ㅁ'에 대응되는 'ㅂㅁ'이 '강순애본', '국도본(가)', '아산본'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국도본(가)'에는 'ㅂㅁ'에 대응되는 'ㅿㅁ'이 쓰인 예가 하나 보여 특이하다.

(26) 盖上天之載ㅅ 無聲無臭ㆍㅂ 其體ㅂㅁ 則謂之易ㅍ 其理則謂之道ㅍ 其用,則謂之神ㅍ 其命于人ㄱ 則謂之性ㅍ 率性ㅿㅁ 則謂之道ㅍ 修道ㅂㅁ 則謂之敎ㅂㅅ(국(가).1:11ㄱ)

이것은 선행음절의 말음이 모음인 경우의 'ㅂㅁ'에 대하여 자음인 경우에 통합되어야 할 '-온/은'의 표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 또 다른 보조사 'ㅅㅁ'도 이본에 따라 일부 나타나는데 '者'에 통합된 경우가 많다.

의문의 보조사 'ᄒᆞ'는 각 이본에 모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아'의 경우는 '국도본(가)'와 '고대본'에서는 'ᄒᆞ', '국도본(나)'에서는 'ㅿ'로만 나타난다. 의문 보조사 '고'에는 'ㅁ'와 'ᄀᆞ'가 함께 사용되었는데 '고대본'에서는 'ᄀᆞ'로만 나타나고, 어미에는 'ㅁ'로 철저히 구분되었다. 'ㅁ'가 다른 구결토와 결합된 형태로는 'ㅁㄱ未'(국(가).2:38ㄱ), 'ㅁㆍ未'(아.2:40ㄱ), 'ㅁㆍㄱ乙'(아.5:11ㄴ) 등이 나타나고 있다

(27) 1. 義ㅁ 訓宜ㅍ 禮ㅁ 訓別ㅍ 智ㅁ 訓知ㅂ 仁當何訓ᄀᆞ(고.1:16ㄱ)
2. 問仁與心ㅅ 何異ㅁᄃᆞ(고.1:18ㄴ)
3. 乾道ㅅ 成男ㆍㅁ 坤道ㅅ 成女ㆍㅁ(고.1:3ㄱ)

강세의 보조사로는 '沙/少'와 변화형 '阿/牙, 也/ㄱ' 등이 나타난다. '沙/少'는 체언이나 'ㅅ' 혹은 처격 조사 'ㄱ' 뒤에 부가되어 '(ㅅ)ㅅ沙/(ㅅ)ㅅ少', '-(ㅅ)ㅅ阿/(ㅅ)ㅅ牙', '-(ㅅ)ㅅㄱ/(ㅅ)ㅅ也, ㄱ沙' 등으로 쓰였다. 그러나 '고대본'에는 '沙/少'가 쓰인 예가 없고 'ㅅ阿, 阿也' 등 '沙'의 변화형만이 쓰이고 있다. 체언에 통합된 예로는 다음 예가 있다.

(28) 1. 惟孟子也 能知之ㅅ亽ㅂ 非理明義精ㄱ 殆未可學ㅂㅅ(강.3:28ㄴ)
2. 惟孟子ㅅ也 能知之ㅅ亽ㅂ 非理明義精ㄱ 殆未可學ㅅㅂㅅ(국(가).3:27ㄱ)
3. 惟志士仁人ㅅ沙 爲能識其遠者大者ㅅㄱ 素求豫備而不敢忽忘ㅅㅂㅅ(아.9:12ㄴ)

이 외에 '강순애본'과 '국도본(가)'에 다음과 같이 '沙'가 단독으로 쓰인 예가 보인다. 이것은 '惟立誠'('오직 정성스러운 뜻을 세워야만')에 호응된 것이므로 일종의 생략형이라 할 수 있다. '아산본'은 'ㅅㅅ沙', '고대본'은 'ㅅ'로 현토되었다. 문맥으로 보아 '고대본'의 'ㅅ'는 올바른 현토라 할 수 없다.

(29) 1. 道之浩浩ㅅ 何處下手ㅁ五 惟立誠沙 纔有可居之處ㅂ 有可居之處則可以修業也ㅂㅅ(강.2:13ㄱ)
2. 道之浩浩ㅂ 何處下手ㅁ五 惟立誠沙 纔有可居之處ㅂ 有可居之處則可以修業也ㅂㅅ(국(가).2:12ㄴ)

4.2. 어미 표기의 특징

양보의 부동사형어미는 다음과 같이 여러 표기형태로 나타난다.

(30) ᄉᆞᄆᆞᄋᆞᄆᆞ, ᄉᆞᄆᆞ馬ᄆᆞ, ᄉᆞᄆᆞᄋᆞᄀᆞ, ᄉᆞᄆᆞᄋᆞᄆᆞ, ᄉᆞᄋᆞᄆᆞ, ᄉᆞ馬ᄆᆞ, ᄉᆞᄋᆞᄀᆞ.

'ㅇ'는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지만 'ㅿ'는 용례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특이한 구결자다.[25] 이것은 '국도본(나)'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ㅇ'의 이체자로 보이나 분명하지 않다. 이본별 표기 양상은 '강순애본, 국도본(가), 고대본'에서는 'ㅇㅁ', '국도본(나)'에서는 'ㅿㅁ', '아산본'에서는 '馬ㅁ'으로 표기되었다. '마ᄂᆞᆫ'이 통합된 예로는 '曰五ㅇㅁ'(강.3:24ㄴ, 국(가).3:23ㄱ), 'ᄉᆞᆼㅇㅁㅿㅁ'(국(나).3:7ㄴ) 등이 보인다.

감탄법어미로 '-ㄴ뎌'와 '-게라'가 사용되었다. '-ㄴ뎌'에 대응되는 구결로는 '-ㅁ底, -ㅁ底, -ㅁ氐' 또는 'ㅁ'이 생략된 '广, 氐'가 사용되었다. 이본별 표기 양상은 '국도본(나)'에서는 '氐', '고대본'에서는 '底'[26]만 사용되었고 '강순애본'에서는 '底'와 '广', '국도본(가)'에서는 '氐'와 '氐', '아산본'에서는 '氐, 底, 广'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 구결들이 다른 구결토와 결합된 형태로는 'ㅁ广ㅅㅌ'(고.1:11ㄴ), 'ㅁ氐ㅅᄉᆞㅌ'(국(가).3:10ㄴ), '氐ㅅᄉᆞㅌ'(국(가). 1:11ㄴ)/底ㅅᄉᆞㅌ(강.1:12ㄱ, 고.3:10ㄴ)/广ㅅᄉᆞㅌ(아.1:12ㄱ)/氐ㅅᄉᆞㅌ(국(나).1:12ㄱ) 등이 보인다.

(31) 1. 領惡而全好者ㅁ 其必由學乎广(강.2:30ㄴ)/氐(국(가).2:28ㄴ)/ㅁ氐(국(나).2:30ㄴ)/ㅁ底(아.2:30ㄴ, 고.2:28ㄴ)
2. 誠之不可揜ㅅ 如此夫广ㅅᄉᆞㅌ/ㅅㅁ广(아.1:12ㄱ)
3. 子在川上ㅅᄉᆞᆫ 曰 逝者ㅅ 如斯夫ㅅㅁ广(아.4:11ㄱ)

감탄법어미 '-게라'에 대응하는 어미로 '巨ㅅ, 巨ㅅㅅ, ㅅ巨ㅅㅅ'가 보인다. 용례는 각 자료에 한두 예씩 나타나는데 (32.4)와 같이 계사와의 결합형 'ㅅ巨ㅅㅅ'도 보인다.

(32) 1. 然未聞自古聖賢ㅅ 因學而致心疾者巨ㅅ(강·국(나)·아·고.3:2ㄴ)

---

25) 'ㅿ'의 용례로 『課誦』(2ㄴ)에 쓰인 "往古來今广 孰無此心可ㅿㅁ"의 예가 보고된 바 있다(장윤희 2001:33).

26) 기입토의 형태로는 모두 底의 마지막 획(一)이 생략되어 있다.

2. 然未聞自古聖賢ㅅ 因學而致心疾者ᄇᆞᆺ(국(가).3:2ㄴ)
3. 殊不知先王制法ㅅ 待人而行ᄉᆞᆺ/ᄒᆞ 未聞立不得人之法也ᄇᆞᆺ(고.9:6ㄴ)
4. 殊不知先王制法ㅅ 待人而行ᄉᆞᆺ/ᄒᆞ 未聞立不得人之法也ㅅᄇᆞᆺ(아.9:6ㄴ)

흔히 한문 '自……至……' 구문의 끝에 와 '…에 이르기까지'의 의미를 표시하던 요소로 '屎'가 쓰였다. 그러나 (33.2)와 (34.2)와 같이 '屎' 대신 'ㅅ'나 'ㅅᄒᆞ' 등이 쓰인 예가 보인다. 이것은 '屎'의 선행구의 의미기능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屎'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屎'는 이 외에 (34.1)에서와 같이 파생부사의 말음 '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예도 보인다. '無治亂屎'는 '다스려지고 어지럽고를 가릴 것 없이'의 뜻이어서 '屎'가 '無'에 대응되는 파생접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3) 1. 如百尺之木ㅅ 自根本ᄋᆞᆫ 至枝葉屎 皆是一貫ㅅᄒᆞᄉᆞ(아.1:18ㄱ)
2. 如百尺之木ㅅ 自根本ᄋᆞᆫ 至枝葉ㅅ 皆是一貫ᄒᆞ(고.1:17ㄱ)

(34) 1. 其言ᄉᆞᆷㅅ 曰 無古今 無治亂屎 如生民之理ㅅ 有窮則聖王之法ㅅ 可改ᄒᆞ(아.9:4ㄱ)
2. 其言曰 無古今無治亂ㅅᄒᆞ 如生民之理ㅅ 有窮則聖王之法ᄋᆞᆫ 可改ᄒᆞ(국(가).9:4ㄱ)

조건의 부동사어미로는 'ᄀᆞ, ᄒᆞ, ᄇᆞ大'가 쓰였다. 'ᄇᆞ大'는 자료에 따라 '引大'(아.3:12ㄱ), '卬大'(강.1:9ㄱ, 국(가).2:22ㄱ), '卬ㄱ大'(강.3:12ㄱ) 등으로 표기된 예도 있다. 이 중 '-ᄇᆞ大'와 '-引大'에는 보조사 'ᄇᆞ'이 통합되어 'ᄇᆞ大ᄇᆞ'(국(가).3:2ㄱ, 아.1:10ㄴ, 고.2:13ㄴ), '引大ᄇᆞ'(아.3:2ㄱ)으로 쓰인 예도 보인다. 'ᄇᆞ大ᄇᆞ'은 '大ᄇᆞ'(강.2:13ㄱ, 국(가).2:12ㄴ, 국(나).2:13ㄱ)과 같이 'ᄇᆞ'이 생략된 형태로 쓰이기도 하였다.

명령이나 당위적 의미의 '丶令夕'의 예로는 '강순애본'과 '아산본'에 다음 두 예가 보인다.

(35) ㄱ. 問忠信進德之事ㅁ 固可勉强令ヒト 然ㅋ 致知甚難丶令夕(강. 3:3ㄱ)
ㄴ. 問忠信進德之事ㅁ 固可勉强丶令ヒト 然致知甚難丶ㅅソつ(국(나)·아.3:3ㄱ)

(36) ㄱ. 易所謂差若毫釐厂 繆以千里者ㅅ 其初乙 不可不審也ヒ丶夕(국(가)·국(나).8:2ㄴ)
ㄴ. 易所謂差若毫釐厂 繆以千里者ㅅ 其初乙 不可不審也丶令夕(아.8:2ㄴ)

'況'으로 시작되는 수사의문문 앞에는 대체로 (37.3)이나 (38.2)와 같이 '令ホ'이 오고 있으나 '盌' 또는 '五ㅁ'이 쓰인 예들이 보인다. '盌'은 '아산본' 및 '고대본'에 그리고 '五ㅁ'은 '국도본(나)'와 '아산본'에 몇 예가 보일 뿐 그 외에는 주로 '令ホ'이 사용되어 기능이 약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

(37) 1. 革而無甚益ㅅ刀 猶可悔也盌 況反害乎牙(아.10:8ㄴ, 고.10:8ㄱ)
2. 革而無甚益ㅅ刀 猶可悔也五ㅁ 況反害乎(국(나).10:8ㄴ)
3. 革而無甚益ㅅ刀 猶可悔也令ホ 況反害乎阿(국(가).10:8ㄱ)

(38) 1. 如避嫌事ㅁ 賢者刀 且不爲五ㅁ 況聖人乎阿(아.6:5ㄱ)
2. 如避嫌事ㅁ 賢者斗 且不爲令ホ 況聖人乎阿(국(가).6:5ㄱ)

명령법어미로는 '-ㅅ'와 '-小西'의 두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小西'의 예는 '아산본'과 '고대본'에 한 개씩 나타나고 '국도본(가)'와 '국도본(나)'에서는 'ヒ丶夕'로 현토되었다.

(39) 1. 有翦桐之戲則隨事箴規ソホ 違持養之方 則應時諫止ソ小西(아. 9:5ㄴ, 고.9:5ㄱ)

2. 有翦桐之戲則隨事箴規ㅅ亦 違持養之方 則應時諫止ㅂㅅㅏ(국(가)·국(나). 9:5ㄱ)

동명사어미로는 'ㅁ未'나 'ㅅ未'와 같이 명사형어미와 주격의 '-이'가 통합된 형태만 보이고 다른 결합형은 보이지 않는다.

(40) ㄱ. 於德性厂 有所懈否阿ㅁ未 此義亦是博文約禮下學上達ㅂ(국(가).2:38ㄱ)
ㄴ. 於德性厂 有所懈否牙ㅅ未 此義ㅅ 亦是博文約禮下學上達ㅅㅂ(국(나).2:40ㄱ)
ㄷ. 於德性厂 有所懈否阿ㅁ未 此義ㅅ 亦是博文約禮下學上達ㅅㅂ(아.2:40ㄱ)

(41) ㄱ. 每日厂 須求多少爲益知所亡亦 改得少不善ㅁㅁ未 此德性上之益五(국(가).2:38ㄱ)
ㄴ. 每日厂 須求多少爲ㅅㄱ 益知所亡ㅅ亦 改得少不善古ㅅ未 此德性上之益五(아.2:38ㄱ)

이 외에 어미 '-ㄴ둘'의 표기에 '-ㅠ月(국(가).2:7ㄱ, 국(나).2:7ㄴ, 아.3:24ㄴ)'이 사용되었는데 '고대본'에는 이 어미가 쓰인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구결은 '-月'(강.2:19ㄱ)과 같이 'ㅠ'이 생략되거나 '月乙'(강.2:7ㄴ, 국(나).2:19ㄱ), 'ㅅㅠ月乙'(강.2:24ㄴ)과 같이 말음 '乙'이 첨기되기도 하였다.

한자어 '大抵'와 '大凡', '大率' 등에는 'ㅅㅠ地/ㅅㅠ氏/ㅅㅠ之' 등이 통합되었는데 '고대본'에는 이 중 아무 용례도 보이지 않는다. 구결자 '之'는 '아산본'에서만 쓰이고 '氏'는 '국도본(나)'에서만 나타난다.

(42) 1. 大凡ㅅㅠ氐(국(나).10:14ㄱ)/乎ㅠ地(국(가).10:13ㄴ)/ㅁㅠ之(아.10:14ㄱ)

2. 大率ノ ᄒᆞ 氏(국(나).12:4ㄱ)/ᄀᆞᄒᆞᄉᆞ(국(가).12:4ㄱ)/ᄂᆞᄒᆞ之(아.12:4)
3. 大抵ᄀᆞᄒᆞ 地(강.4:20ㄴ, 국(가).4:19ㄴ)/ᄂᆞᄒᆞ 地(강・국(나).5:9ㄱ)/ᄂᆞᄀᆞᄒᆞ 地(국(나).2:17ㄴ) 大抵ノ ᄒᆞ 氏(국(나).4:20ㄴ)/ᄂᆞᄒᆞ 氏(국(나).5:9ㄱ)/ᄂᆞᄒᆞ 氏(국(나).2:18ㄴ)/ᄂᆞᄒᆞ之(아.5:9ㄱ)

5. 결론

이상 17세기 후반 내지 18세기의 구결을 보여 주는『근사록』이본 5종에 나타난 구결의 문자체계와 구결의 표기 양상 및 구결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근사록』에 사용된 구결토는 모두 447개로 이본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200여 개 정도에 이르고 있다. 구결 표기에 쓰인 구결자의 목록은 조선 중기 이후의 구결자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특이한 예로 'ㅣ'와 'ㅋ'의 용례가 보인다.

구결 표기의 양상으로는 생략 표기, 음의 첨기, 대표음의 전용 현상 등이 일부 보이고 조사와 어미 표기에서 몇 가지 특징적 양상이 확인되었다. 조사 표기의 특징으로는 조격의 '又'와 '乙又', 처격의 '厂, 今ㅅ, 亦ㅅ', 보조사 '-古'와 '-ㅁ'가 이본에 따라 표기 양상이 달리 나타나고, 영탄의 호격 조사로 '-亦'와 '-女'가 사용되었다. 보조사로는 주제의 보조사로 일부 'ㅌᄒᆞ'과 'ㅅᄒᆞ'의 용례가 보인다. 어미 중 양보의 '-마ᄅᆞᆫ/마ᄂᆞᆫ'과 감탄의 '-ㄴ뎌'에 대응되는 구결토는 이본에 따라 가장 많은 표기의 차이를 보인다. 어미로는 감탄법의 '巨ㅅ, 巨ㅅㅅ' 조건의 '-ㅜ, -ㅗ, -ᄒᆞ大' 명령법의 '-ㅅ, -小西', 명령이나 당위의 'ㅅ今夕', 수사의문문 앞의 '-盈, -五ᄒᆞ' 등을 살펴보았고 동명사어미로는 'ᄀᆞ未, ᄂᆞ未'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에 이르기까지"의 의미와 파생부사의 말음을 표기하는 데 사용된 '尿'와 '尿' 대신 쓰인 'ㅅ'나 'ᄂᆞㅌ' 등의 예를 통해 '尿'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참고 문헌

강순애(2002), 「初鑄甲寅字本 『近思錄』과 관련 版本 硏究」, 『書誌學硏究』 24, 書誌學會, 161-189쪽.

고정의(2004), 「구결연구의 현황과 과제」, 『口訣硏究』 12, 口訣學會, 5-46쪽.

남경란(1999a), 「『능엄경』권8의 입겾 연구-고려본과 조선 초기본을 대상으로」, 『한국말글학』 16, 한국말글학회, 129-148쪽.

남경란(1999b), 「남권희본 『능엄경』 입겾 자형에 대하여」, 『語文學』 66, 韓國語文學會, 62-100쪽.

남경란(2001), 「능엄경의 음독 입겾 연구」, 대구가톨릭대 박사학위 논문.

南權熙(1999), 「朝鮮 中期부터 舊韓末까지의 口訣資料에 관한 書誌學的 硏究」, 『書誌學硏究』 18, 書誌學會, 445-508쪽.

南豊鉉(1990), 「高麗末·朝鮮初期의 口訣 硏究-楞嚴經 記入吐의 表記法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69, 75-101쪽.

南豊鉉(1995), 「朴東燮本 楞嚴經의 解題」, 口訣資料 叢書 1 『高麗 時代 楞嚴經』, 太學社.

南豊鉉(1999), 『國語史를 위한 口訣硏究』, 太學社.

박부자(2000), 「정문연본 『永嘉證道歌』의 구결에 대하여」, 『口訣硏究』 6, 口訣學會, 135-172쪽.

박진호(1996), 「奎章閣 所藏 口訣資料 『楞嚴經』 2種에 대하여」, 『口訣硏究』 1, 口訣學會, 73-94쪽.

백두현(1997c), 「高麗時代 口訣의 文字體系와 通時的 變遷」,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太學社, 287-384쪽.

安秉禧(1976c), 「中世語의 口訣 記寫 資料에 대하여」, 『奎章閣』 1, 서울대 圖書館, 51-65쪽.

安秉禧(1977), 『中世國語 口訣의 硏究』, 一志社.

李丞宰(1993b), 「麗末鮮初의 口訣資料」, 『國語史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문학과지성사, 56-76쪽.

이전경(2001), 「15세기 구결 표기법의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윤희(1997),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國語學叢書 41, 國語學會.

장윤희(2001), 「『課誦』 해설」, 『奎章閣所藏 語文學資料』, 서울대학교 奎章閣, 32-33쪽.

崔範勳(1979), 「『孟子集註』의 混成口訣에 대하여」, 『청주사대논문집』, 청주사범대학, 1-20쪽.
崔範勳(1982), 「『書釋』의 特殊口訣에 對하여」, 『경기대논문집』 11, 경기대학교, 1-20쪽.
洪允杓(1986), 「近代國語 省劃吐에 대한 硏究 -『小學諸家集註』를 중심으로」, 『동천 조건상 선생 고희기념 논총』, 357-379쪽.
황선엽(1996), 「一簑文庫本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口訣硏究』 1, 口訣學會, 95-126쪽.

〔136-04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2가 221〕
E-mail: jungeuiko@hanmail.net
접수일자: 2004. 10. 11.
게재결정: 2005. 1. 29.

<日文抄錄>

『近思錄』の口訣研究

高正儀

今日までの口訣研究は、主に高麗時代、または朝鮮初期の資料に集中され、朝鮮中期から後期の資料は特に注目されずにきた。特に佛家の資料に比べ、儒家の資料に関する論議は、ほとんど成されていない。

本稿は、高麗末に傳來し、儒家の必讀書として位置づけられた『近思錄』のうち、17世紀後半乃至18世紀の口訣が記載されている5種の異本に表れた口訣の特徴と表記様相を調べ、文字體系と口訣吐の目錄を整理することに焦點をおいた。

その結果、口訣字の目錄は、朝鮮中期以後の口訣字と特に違いが表れないが、'ㅕ'と'ᄀᆡ'の用例が確認された。また口訣字の表記様相は三つの類型に區分し、調べた。

近思錄(5種)の口訣吐は、449個の異本によって相當の違いがみられるが、大體、200餘個程度に達した。

表記法の特徴としては、省略表記、音の添記、代表音の轉用現象などが一部に表れ、助詞と語尾の　表記からはいくつかの特徴ある様相が確認された。

助詞の表記の特徴としては造格の '-ᄋᆞᄉᆞ'と '-ᄅᆞᄉᆞ'、處格の 'ᄀᆞ、ᄉᆞᄂᆞ、ᄒᆞᄂᆞ'、補助詞 '-ᄀᆞᆫ'と'-ᄅᆞ'などの表記様相が、異本によって異なって表れ、詠嘆の呼格助詞としては '-ᄒᆞ'と'-ᄋᆞ'が　使用されていた。補

助詞としては、主題の補助詞の一部‘ㅌㅜ’と‘ㅅㅜ’の用例が見て取れる。

語尾のうち、譲歩の‘-마ᄅᆞ/마ᄂᆞᆫ’と感歎の‘-ㄴᄃᆡ’に對應する口訣吐は、異本によって、最も多くの表記の違いがみられる。語尾は、感歎法の‘ᄇᆞᆺ、ᄇᆞᄉᆞᆺ’、條件の‘-ᄋᆞ、-ᄒᆞ、-ᄒᆞ大’、命令法の‘-ᄉᆞ、-小西’、命令または當爲の‘ᄉᆞᄉᆞᄆᆞ’、修辭疑問文の前に表れる‘-ᄆᆞᆫ、-五ᄒᆞ’などを中心に調べ、動名詞語尾では、‘ㅁ未、ㅅ未’の形態が確認された。さらに、“…に至るまで”という意味を持つ要素‘屎’が派生副詞の末音を表記するのに使用された例も確認された。

核心語: 近思錄、口訣、儒家口訣、文字體系、口訣吐、口訣字

<부록>

구결 목록

가(可)<강.3:20ㄴ, 국(가).3:14ㄱ, 국(나).5:10ㄴ, 아.3:15ㄱ, 고.3:19ㄴ>
게라(巨ㅅ)<강.3:2ㄴ, 국(나).8:2ㄴ, 아.3:2ㄴ>
게라(巨ㄴㅅ)<국(가).3:2ㄴ, 고.9:6ㄴ>
고(ㅁ.의문)<강.5:11ㄴ, 국(가).2:36ㄱ, 국(나).2:38ㄱ, 아.4:7ㄴ>
고(古・접속)<국(가).3:3ㄴ>
고(古・의문)<강.2:38ㄱ, 국(가).1:19ㄱ, 아.1:16ㄴ, 고.1:16ㄱ>
고호미(ㅁㅎ未)<국(가).2:38ㄱ>
고ᄒᆞ미(古ㄴ未)<아.2:40ㄱ>
고ᄒᆞ야늘(ㅁㄴㄱ乙)<아.5:11ㄴ>
과(果)<강.1:3ㄴ, 국(가).1:3ㄱ, 국(나).1:3ㄴ, 아.1:3ㄴ, 고.2:1ㄱ>
ㄴ대(ㄲ大)<강.2:24ㄴ, 국(가).2:13ㄴ, 국(나).2:15ㄱ, 아.2:38ㄴ>
ㄴ댄(ㄲ大ㄲ)<국(가).3:2ㄱ, 아.1:10ㄴ, 고.2:13ㄴ>
ㄴ져(ㄲ氐)<국(나).2:30ㄴ>
ㄴ져(ㄲ底)<아.2:30ㄴ>
ㄴ져(ㄲ广)<강.4:1ㄱ>
ㄴ져ᄒᆞ니(ㄲ底ㄴㅌ)<고.1:11ㄴ>
ㄴ져ᄒᆞ시니(ㄲ氐ㄴㅅㅌ)<국(가).3:10ㄴ>
ㄴ둘(ㄲ月)<국(가).2:7ㄱ, 국(나).2:7ㄴ>
나(尹)<강.1:30ㄱ, 국(가).1:7ㄴ, 국(나).1:8ㄱ, 아.1:8ㄱ, 고.1:10ㄱ>
나(那)<강.1:10ㄱ)
녀(女)감탄<국(가).1:5ㄱ>
노니(又ㅌ)<아.10:10ㄴ>
노이다(又ㄴㅁ)<아.7:11ㄴ, 고.7:11ㄱ>
니(ㅌ)<강.2:22ㄱ, 국(가).1:1ㄱ, 국(나).1:6ㄴ, 아.1:1ㄱ, 고.1:1ㄱ>
니다(ㅌㅁ)<국(가).13:4ㄱ>
니라(ㅌㅅ)<강.2:29ㄴ, 국(가).1:1ㄴ, 국(나).1:3ㄱ, 아.1:8ㄴ, 고.1:1ㄴ>
니라ᄒᆞ니(ㅌㅅㄴㅌ)<국(가).10:3ㄴ>

니이다(ㅌㅅㅏ)<강.5:11ㄴ, 국(가).4:15ㄱ, 국(나).4:16ㄱ, 고.7:8ㄴ>
니잇고(ㅌㅅᄠㅁ)<아.1:17ㄱ>
니잇고(ㅌㅅᄠ古)<국(가).4:16ㄱ, 고.4:3ㄱ>
닛가(ㅌᄠ可)<아.4:17ㄴ>
닛고(ㅌᄠㅁ)<강.4:17ㄱ>
닛고(ㅌᄠ古)<아.3:5ㄴ>
논(ㅌㅍ)<강.4:2ㄱ, 국(가).1:8ㄴ, 아.5:4ㄱ>
댄(大ㅍ)<강.2:13ㄱ, 국(가).2:12ㄴ, 국(나).2:13ㄱ>
도(ㄲ)<강.3:20ㄱ, 국(가).7:12ㄱ, 국(나).11:8ㄴ, 아.11:2ㄱ>
두(ㅚ)<국(나).6:5ㄱ>
둘(月)<강.2:19ㄱ>
둘(月乙)<강.2:7ㄴ, 국(나).2:19ㄱ>
ᄯᅥ녀(月ㅍ赤)<국(나).2:41ㄱ>
ᄯᅥ녀(ᄠ月女)<강.2:4ㄱ, 국(가).2:39ㄱ, 아.2:41ㄱ>
ㄹ가ᄒ노이다(乙可ㅅㅈㅅㅏ)<강.3:19ㄴ>
ㄹ씨니(乙ㅈㅅㅌ)<강.3:19ㄱ, 국(가).3:18ㄱ>
ㄹ씨니라(乙ㅈㅅㅌㅅ)<강.4:19ㄴ, 국(가).2:25ㄴ, 국(나).2:26ㄴ, 아.7:7ㄴ>
ㄹ씨라(乙ㅈㅅ)<강.4:19ㄴ>
ㄹ씨라(乙ㅈㅅㅅ)<국(가).8:7ㄴ, 국(나).10:18ㄴ>
ㄹ씨니라(乙ㅈㅌㅅ)<아.2:26ㄴ>
라(ㅅ)감탄<강.1:5ㄴ, 국(가).1:5ㄱ, 국(나).1:5ㄴ, 아.1:5ㄴ, 고.5:1ㄴ>
라(ㅅ)서술<강.1:4ㄱ, 국(가).1:3ㄴ, 국(나).1:5ㄴ, 아.1:5ㄱ, 고.1:3ㄴ>
라가(ㅅ可)<강.3:6ㄱ, 국(가).1:17ㄱ, 국(나).1:18ㄱ, 아.1:18ㄱ, 고.2:21ㄱ>
라니(ㅅㅌ)<강.2:14ㄴ, 국(가).2:14ㄱ, 국(나).3:14ㄱ, 아.2:26ㄱ>
라니라(ㅅㅌㅅ)<아.10:10ㄴ>
라도(ㅅㄲ)<강.1:16ㄴ, 국(가).1:9ㄴ, 국(나).1:10ㄱ, 아.1:10ㄱ, 고.1:9ㄴ>
라두(ㅅㅚ)<강.5:10ㄴ, 국(가).5:9ㄴ, 국(나).2:7ㄴ, 아.1:19ㄴ, 고.2:40ㄴ>
라두(ㅅㅛ)<강.1:10ㄱ>
라사(ㅅ沙)<강.4111ㄱ, 국(가).1:15ㄴ, 국(나).2:39ㄴ, 아.1:23ㄱ>
라사(ㅅ少)<강.1:16ㄱ, 국(나).3:8ㄴ>
라시니(ㅅㅜㅌ)<아.6:4ㄴ>

라아(ㅅ阿)<강.3:3ㄴ, 국(가).3:3ㄱ, 아.1:9ㄴ, 고.2:13ㄱ>
라아(ㅅ牙)<아.2:38ㄴ>
라야(ㅅㄱ)<국(가).1:12ㄴ>
라야(ㅅ也)<강.3:7ㄴ, 국(가).3:7ㄱ>
라호니(ㅅㅅㅂ)<국(나).5:8ㄴ>
라ᄒᆞ고(ㅅㅅㅁ)<강.2:6ㄴ, 국(가).2:6ㄱ, 국(나).3:22ㄴ, 아.2:38ㄴ, 고.2:36ㄴ>
라ᄒᆞ나(ㅅㅅ尹)<강.2:21ㄱ, 국(가).2:20ㄱ>
라ᄒᆞ노니(ㅅㅅㅈㅂ)<국(나).3:24ㄴ>
라ᄒᆞ노라(ㅅㅅㅈㅅ)<강.3:9ㄴ, 국(가).3:9ㄱ, 국(나).3:9ㄴ, 아.3:9ㄴ>
라ᄒᆞ노이다(ㅅㅅㅈㅣㅌ)<아.3:9ㄴ>
라ᄒᆞ니(ㅅㅅㅂ)<강.2:18ㄴ, 국(가).1:8ㄴ, 국(나).1:12ㄴ, 아.1:19ㄱ, 고.1:5ㄱ>
라ᄒᆞ니라(ㅅㅅㅂㅅ)<강.2:9ㄴ, 국(나).5:13ㄴ, 아.2:9ㄴ, 고.2:9ㄱ>
라ᄒᆞ니이다(ㅅㅅㅂㅣㅌ)<국(가).7:11ㄴ>
라ᄒᆞᄂᆞ니(ㅅㅅㅌㅂ)<강.1:3ㄱ, 국(가).2:21ㄴ, 국(나).9:6ㄴ, 아.8:5ㄴ, 고.2:22ㄴ>
라ᄒᆞᄂᆞ니이다(ㅅㅅㅌㅂㅣㅌ)<국(나).7:12ㄱ>
라ᄒᆞ더니(ㅅㅅㅋㅂ)<국(나).11:3ㄴ>
라ᄒᆞ더니(ㅅㅅ加ㅂ)<아.11:3ㄴ>
라ᄒᆞ더라(ㅅㅅㅋㅅ)<국(가).14:9ㄴ>
라ᄒᆞ더라(ㅅㅅ加ㅅ)<강.2:28ㄴ>
라ᄒᆞ더시니(ㅅㅅㅋㅅㅂ)<국(가).9:13ㄱ>
라ᄒᆞ더시다(ㅅㅅㅋㅅㅌ)<강.4:7ㄴ, 국(가).3:25ㄱ, 국(나).4:7ㄴ>
라ᄒᆞ더시다(ㅅㅅ加ㅅㅌ)<아.6:7ㄴ>
라ᄒᆞ더이다(ㅅㅅㅋㅣㅌ)<강.3:10ㄴ, 국(가).3:10ㄱ, 국(나).3:10ㄴ, 아.3:10ㄴ>
라ᄒᆞ며(ㅅㅅㅈ)<강.2:19ㄱ, 국(가).1:5ㄱ, 국(나).1:5ㄱ, 아.2:19ㄱ>
라ᄒᆞ샤(ㅅㅅ全)<강.3:21ㄴ, 국(가).1:12ㄴ, 국(나).1:13ㄱ, 아.3:21ㄴ, 고.3:20ㄴ>
라ᄒᆞ시고(ㅅㅅㅅㅁ)<강.2:38ㄴ, 국(가).6:7ㄱ, 국(나).2:3ㄴ, 아.2:3ㄴ, 고.2:3ㄴ>
라ᄒᆞ시고(ㅅㅅㅅ古)<국(가).9:13ㄱ>
라ᄒᆞ시니(ㅅㅅㅅㅂ)<강.2:19ㄱ, 국(가).1:6ㄱ, 국(나).1:6ㄴ, 아.1:5ㄱ, 고.1:10ㄱ>
라ᄒᆞ시니라(ㅅㅅㅅㅂㅅ)<강.1:6ㄴ, 국(가).1:5ㄱ, 국(나).1:6ㄴ, 아.1:6ㄴ, 고.2:36ㄴ>
라ᄒᆞ시ᄂᆞᆯ(ㅅㅅ申乙)<국(가).2:3ㄴ>
라ᄒᆞ시다(ㅅㅅㅅㅌ)<강.2:38ㄴ, 국(가).2:36ㄴ, 아.6:7ㄱ, 고.2:27ㄱ>

라ᄒᆞ시며(ㅅㅅㅜㅛ)<강.2:3ㄴ, 국(가).2:3ㄴ>
라ᄒᆞ야(ㅅㅅㅋ)<강.3:11ㄱ, 국(가).2:4ㄱ, 국(나).3:11ㄱ, 아.1:13ㄱ>
라ᄒᆞ야(ㅅㅅㅿ)<강.1:10ㄱ, 고.9:4ㄱ>
라ᄒᆞ야ᄂᆞᆯ(ㅅㅅㅋㅌㄹ)<아.1:19ㄱ>
라ᄒᆞ야ᄂᆞᆯ(ㅅㅅㅋㄹ)<강.4:3ㄴ, 국(가).4:3ㄴ, 국(나).4:3ㄴ, 아.4:3ㄴ>
라ᄒᆞ야ᄂᆞᆯ(ㅅㅅㅿㄹ)<고.7:3ㄱ>
라ᄒᆞᆫ대(ㅅㅅㅍ大)<국(가).5:8ㄱ, 고.4:3ㄴ>
란(ㅅㅍ)<강.2:38ㄱ, 국(가).2:36ㄱ, 국(나).2:38ㄱ, 아.3:3ㄴ>
러니(ㅁㅌ)<강.2:20ㄱ, 국(가).2:19ㄴ, 국(나).2:20ㄴ, 아.2:21ㄱ, 고.2:19ㄴ>
러니라(ㅁㅌㅅ)<아.2:4ㄱ>
러니와(ㅁㅌㅏ)<강.2:28ㄴ>
러라(波ㅅ)<국(가).3:24ㄴ>
러라(ㅁㅅ)<강.3:14ㄴ, 국(가).1:15ㄱ, 국(나).1:16ㄱ, 아.3:15ㄴ, 고.2:14ㄱ>
러라(ᄉㅅ)<강.1:16ㄱ>
러시니(ㅁㅜㅌ)<국(가).4:7ㄴ, 국(나).3:15ㄱ, 아.3:10ㄱ, 고.3:20ㄱ>
러시다(ㅁㅜㅎㅏ)<강.4:19ㄱ>
러시다(ㅁㅜㅎㅏ)<국(가).2:14ㄴ, 국(나).2:15ㄴ, 아.3:15ㄴ, 고.2:14ㄴ>
러시라(ㅁㅜㅅㅅ)<국(나).3:15ㄴ>
러시이다(ㅁㅜㅅㅣㅎㅏ)<국(나).3:15ㄴ>
러이다(ㅁㅣㅎㅏ)<아.5:11ㄴ, 고.5:10ㄴ>
려ᄒᆞ시니(底ㅅㅜㅌ)<강.1:12ㄱ>
로(ㅈ)<강.2:5ㄱ, 국(가).1:6ㄱ, 국(나).1:4ㄱ, 아.1:4ㄱ, 고.1:4ㄱ>
로다(ㅈㅎㅏ)<강.2:1ㄴ, 국(가).1:5ㄱ, 국(나).1:5ㄴ, 아.3:5ㄴ, 고.1:5ㄱ>
로도(ㅈㄱ)<국(가).1:4ㄱ, 국(나).2:39ㄴ, 아.2:39ㄴ>
로ᄃᆡ(ㅈㅊ)<강.2:12ㄱ, 국(가).1:6ㄴ, 국(나).1:6ㄴ, 아.1:6ㄴ, 고.1:8ㄱ>
로소이다(ㅈ所ㅣㅎㅏ)<강.3:9ㄴ, 국(가).3:9ㄱ, 아.3:9ㄴ, 고.3:3ㄱ>
론(ㅈㅍ)<강.2:6ㄴ, 국(가).2:6ㄱ, 국(나).2:6ㄴ, 아.2:6ㄴ, 고.2:6ㄱ>
리니(ㅂㅌ)<강.2:9ㄱ, 국(가).1:9ㄱ, 국(나).2:9ㄱ, 아.1:9ㄴ>
리라(ㅂㅅ)<강.1:2ㄴ, 국(가).2:1ㄱ, 국(나).1:8ㄴ, 아.2:4ㄱ>
리라(里ㅅ)<강.1:9ㄴ>
리라ᄒᆞ니(ㅂㅅㅜㅌ)<아.7:1ㄴ>

리라ᄒᆞ니(里ㅅㅅㅣㅂ)<강.2:5ㄴ>
리라ᄒᆞ야ᄂᆞᆯ(ㅂㅅㅅㅣㄱㄹ)<아.7:1ㄴ>
리라ᄒᆞᆯᄂᆞᆯ(ㅂㅅㅅㅣㄹㅂㄹ)<아.2:10ㄱ>
리씨니라(ㄹㅗㅅㅂㅅ)<강.4:19ㄴ>
리오(ㅂㅅ)<고.5:8ㄱ>
리오(ㅂ五)<강.1:12ㄱ, 국(가).1:8ㄱ, 국(나).1:8ㄱ, 아.1:9ㄱ, 고.1:8ㄱ>
리오(里五)<강.1:8ㄱ>
리오마ᄅᆞᆫ(ㅂ五ㅏㅁ)<강.3:24ㄴ, 국(가).3:23ㄱ>
리오하야(ㅂ五ㅅㄱ)<국(가).13:4ㄱ>
리오ᄒᆞ고(ㅂ五ㅅㅁ)<국(가).14:11ㄴ>
리오ᄒᆞ니(ㅂ五ㅅㅂ)<강.3:10ㄴ, 아.3:15ㄱ, 고.3:14ㄱ>
리오ᄒᆞ샤(ㅂ五ㅅ全)<아.13:4ㄴ, 고.13:4ㄱ>
리오ᄒᆞ시니(ㅂ五ㅅㅜㅂ)<강.3:11ㄴ, 국(가).3:10ㄴ, 국(나).3:11ㄴ, 아.3:11ㄴ>
리잇고(ㅂㅅ叱古)<고.5:9ㄱ>
리잇고(ㅂ叱ㅁ)<강.5:9ㄴ>
리잇고(ㅂ叱古)<국(가).5:9ㄱ>
릴ᄉᆡ(ㅂㄹㅗㅅ)<아.2:9ㄴ>
며(ホ)<강.2:22ㄱ, 국(가).1:8ㄴ, 국(나).1:18ㄴ, 아.1:17ㄴ, 고.1:6ㄱ>
면(ㅕ)<강.2:6ㄱ, 국(가).1:6ㄴ, 국(나).1:9ㄴ, 아.1:11ㄱ, 고.1:8ㄱ>
면(ㅕㅁ)<강.2:12ㄴ>
면(面)<강.2:5ㄴ>
ㅅ가(叱可)<강.2:23ㄴ, 국(가).2:22ㄴ, 아.3:4ㄴ, 고.1:19ㄴ>
ㅅ고(叱ㅁ)<강.2:28ㄴ, 국(가).2:27ㄱ>
ㅅ고(叱古)<강.2:28ㄴ, 국(가).2:34ㄴ, 아.2:36ㄱ, 고.1:16ㄱ>
사(沙)<강.2:13ㄱ, 국(가).2:12ㄴ>
사(少)<강.2:21ㄱ, 국(나).4:6ㄱ>
소이다(所ㅅㅌ)<강.3:11ㄱ, 국(가).3:10ㄴ>
시니(ㅜㅂ)<강.3:10ㄱ, 국(가).6:4ㄴ, 국(나).3:10ㄱ, 아.3:10ㄱ, 고.3:21ㄱ>
시니라(ㅜㅂㅅ)<강.1:15ㄱ, 국(가).1:8ㄱ, 국(나).1:8ㄱ, 아.1:8ㄱ, 고.1:8ㄱ>
시리니(ㅜㅁㅂ)<강.5:10ㄱ>
시리라(ㅜㅁㅅ)<아.4:7ㄱ, 고.13:6ㄴ>

시리오(丁曰五)<국(가).2:6ㄴ, 국(나).2:7ㄱ>
아(阿)<강.2:2ㄱ, 국(가).1:19ㄴ, 아.2:2ㄱ, 고.2:2ㄱ>
아(牙)<강.2:12ㄱ, 국(나).1:20ㄴ, 아.2:40ㄱ>
아야(阿也)<고.2:10ㄴ>
아호미(阿勿未)<국(가).2:38ㄱ>
아호미(牙ノ未)<국(나).2:40ㄱ>
아ᄒᆞ며(阿ノ亦)<아.2 40ㄱ:>
아ᄒᆞ면(阿ノ下)<고.2:38ㄱ>
아ᄒᆞ시니(阿ノ丁ヒ)<아.8:10ㄴ, 국(가).8:10ㄴ, 고.8:10ㄴ>
아ᄒᆞ시니(牙ノ丁ヒ)<국(나).8:10ㄴ>
아ᄒᆞ야(阿ノつ)<국(가).2:10ㄴ, 아.2:11ㄱ>
아ᄒᆞ야(阿ノ也)<강.2:11ㄱ>
아ᄒᆞ야(牙ノつ)<국(나).2:11ㄱ>
안(阿ㅁ)<강.2:22ㄱ>
안(牙ㅁ)<국(가).1:11ㄱ>
애(厂)<강.1:2ㄴ, 국(가).1:1ㄴ, 국(나).1:2ㄴ, 아.2:2ㄱ, 고.1:1ㄴ>
애(厓)<강.2:11ㄱ>
애도(厂刀)<강.3:8ㄴ, 국(가).3:8ㄱ>
애사(厂沙)<국(가).2:20ㄱ, 국(나).2:21ㄱ, 아.8:12ㄱ>
애사(厂少)<국(나).2:25ㄱ>
애야(厂也)<강.3:28ㄱ, 국(가).3:26ㄴ>
앤(厂ㅁ)<강.1:14ㄱ, 국(가).1:21ㄴ, 국(나).2:11ㄱ, 아.1:14ㄱ, 고.10:5ㄴ>
야(也)<강.3:28ㄴ>
어나(令乃)<아.6:5ㄱ>
어나(令尹)<강.3:24ㄱ, 국(가).3:23ㄱ, 국(나).3:24ㄱ, 고.6:5ㄱ>
어늘(戶乙)<강.2:37ㄱ>
어늘(令乙)<강.2:37ㄴ, 국(가).2:19ㄱ, 국(나).2:20ㄱ, 아.2:20ㄱ, 고.2:26ㄱ>
어니(令ヒ)<국(가).3:14ㄱ, 국(나).4:6ㄴ, 아.2:20ㄴ>
어니와(戶ヒト)<강.2:19ㄱ>
어니와(令ヒト)<강.1:13ㄴ, 국(가).1:8ㄱ, 국(나).1:13ㄴ, 아.1:13ㄴ, 고.1:13ㄱ>
어니와(令ヒ臥)<강.1:10ㄱ>

어든(ᄉᆞᄒᆞ)<강.서2ㄱ, 국(가).2:1ㄱ, 국(나).3:8ㄱ, 아.2:3ㄴ, 고.2:1ㄱ>
어든(ᄉᆞᄒᆞᄇᆞ)<강.서2ㄱ>
어시니(ᄉᆞᄉᆞᄒᆡ)<국(나).14:10ㄴ>
어시니(ᄉᆞ寺ᄒᆡ)<강.1:10ㄴ>
어시늘(ᄇᆞᄉᆞᄀᆞᆯ)<강.2:28ㄴ>
어시늘(ᄉᆞᄉᆞᄀᆞᆯ)<강.4:4ㄱ, 국(가).2:27ㄴ, 국(나).2:28ㄴ, 아.2:28ㄴ, 고.2:37ㄴ>
어시다(ᄉᆞᄉᆞᄐᆞ)<강.2:15ㄴ>
어신(ᄉᆞᄉᆞᄇᆞ)<아.3:7ㄴ>
어신마론(ᄉᆞᄉᆞᄇᆞᄋᆞᄇᆞ)<국(나).3:7ㄴ>
어아(ᄉᆞ牙)<아.14:13ㄱ>
언마론(ᄉᆞᄇᆞᄋᆞᄇᆞ)<국(가).7:9ㄴ, 고.5:4ㄱ>
언마론(ᄉᆞᄇᆞ馬ᄇᆞ)<아.3:1ㄴ>
언마론(ᄉᆞᄇᆞᄋᆞᄇᆞ)<국(나).7:9ㄴ>
언마론(ᄉᆞ馬ᄇᆞ)<아.7:9ㄴ>
언마론(ᄉᆞᄒᆞᄋᆞᄇᆞ)<국(가).1:8ㄱ>
언마론(ᄉᆞᄒᆞᄋᆞᄇᆞ)<강.1:8ㄴ, 국(가).3:1ㄴ>
언마론(ᄉᆞᄒᆞ馬ᄇᆞ)<아.1:8ㄴ>
언마론(ᄉᆞᄒᆞᄋᆞᄇᆞ)<국(나).3:1ㄴ>
언졍(ᄉᆞᄒᆞᄃᆞᆼ)<강.1:12ㄱ, 국(가).1:12ㄱ, 국(나).1:12ㄴ, 아.1:12ㄴ, 고.14:4ㄱ>
에(ᄉᆞᄂᆞᆫ)<강.3:15ㄴ, 국(가).1:5ㄴ, 아.2:9ㄱ, 고.1:10ㄴ>
엔<고.5:4ㄱ>
여(ᄒᆞ・처격)<아.1:17ㄱ>
여(ᄒᆞ・호격)<강.5:13ㄴ, 국(가).5:13ㄱ, 국(나).5:13ㄴ, 아.1:5ㄴ, 고.1:5ㄱ>
예(ᄒᆞᄂᆞᆫ)<국(가).1:16ㄴ, 국(나).1:17ㄱ, 아.2:17ㄱ, 고.1:3ㄴ>
옌(ᄒᆞᄇᆞ)<강.2:29ㄱ, 국(가).2:27ㄴ, 아.2:29ㄱ>
옌(ᄒᆞᄂᆞᆫᄇᆞ)<국(나).2:29ㄱ>
오(五・접속)<강.1:3ㄱ, 국(가).1:3ㄱ, 국(나).2:25ㄱ, 아.1:3ㄱ, 고.2:1ㄱ>
오(五・의문)<강.서3ㄱ, 국(가).2:27ㄱ, 아.2:28ㄴ, 고.1:9ㄱ>
오ᄒᆞ니(五ᄂᆞᆫᄒᆡ)<국(가).3:9ㄴ>
오ᄒᆞ더시니라(五ᄂᆞᆫカᄉᆞᄒᆡᄉᆞ)<강.2:14ㄴ>
오ᄒᆞ더시다(五ᄂᆞᆫカᄉᆞᄐᆞ)<강.2:14ㄴ, 국(가).2:14ㄱ>

오ᄒᆞ시다(五ㅅᄉᆞ타)<아.2:14ㄴ>
온(五ᄇᆞ)<국(나).10:8ㄴ, 아.6:5ㄱ>
온(盈)<국(가).4:4ㄱ, 아.10:8ㄴ, 고.3:25ㄱ>
와(ㅏ)<강.2:21ㄱ, 국(가).1:9ㄱ, 국(나).1:10ㄱ, 아.1:9ㄴ, 고.1:9ㄱ>
와(臥)<강.1:9ㄴ>
와ᄅᆞᆯ(ㅏㄹ)<국(가).10:4ㄴ>
으로(ㄹᄋᆞ)<국(나).1:7ㄱ, 아.1:4ㄱ>
으로(ㄹ五)<강.1:4ㄱ>
으로도(ㄹᄋᆞㄲ)<국(나).12:4ㄴ, 아.12:4ㄴ>
을가ᄒᆞ노이다(ㄹ可ㅅᄋᆞㅅ타)<아.3:19ㄴ>
의(ㅅ)<강.1:16ㄴ, 국(가).2:12ㄴ, 국(나).1:16ㄴ, 아.1:19ㄱ>
의(矣)<강.2:13ㄱ, 국(가).1:15ㄴ, 고.6:5ㄴ>
이(ㅣ)<강.1:1ㄴ, 국(가).1:1ㄴ, 국(나).1:1ㄴ, 아.1:1ㄴ, 고.1:1ㄴ>
이거든(ㅣ巨ㅎ)<아.9:9ㄴ>
이건대(ㅣ巨ᄇᆞ大)<아.14:6ㄴ>
이게라(ㅣ巨ㅣㅅ)<아.9:6ㄴ>
이나(ㅣ尹)<강.1:12ㄴ, 국(가).1:13ㄴ, 국(나).1:1ㄱ, 아.1:10ㄱ>
이니(ㅣㅂ)<강.2:6ㄱ, 국(가).1:23ㄱ, 국(나).1:9ㄴ, 아.1:5ㄴ>
이니다(ㅣㅂ타)<아.10:1ㄱ>
이니라(ㅣㅂㅅ)<국(가).2:31ㄴ, 국(나).1:2ㄱ, 아.1:2ㄱ>
이니이다(ㅣㅂㅣ타)<강.4:16ㄱ, 국(나).3:11ㄱ, 아.3:11ㄱ>
이니잇가(ㅣㅂ叱可)<아.4:14ㄴ>
이니잇고(ㅣㅂ叱古)<아.4:3ㄱ>
이니잇고(ㅣㅂㅣ叱ㅁ)<국(나).4:17ㄱ>
이라(ㅣㅅ)<강.1:5ㄱ, 국(가).1:5ㄱ, 국(나).1:6ㄴ, 아.1:3ㄱ>
이라가(ㅣㅅ可)<국(나).3:6ㄱ, 아.3:6ㄱ>
이라니(ㅣㅅㅂ)<국(나).4:18ㄱ>
이라도(ㅣㅅㄲ)<국(가).2:1ㄱ, 국(나).1:16ㄴ, 아.1:16ㄴ>
이라두(ㅣㅅ사)<국(나).2:19ㄱ>
이라사(ㅣㅅ沙)<국(나).2:25ㄴ, 아.1:12ㄴ>
이라사(ㅣㅅ少)<국(나).1:16ㄱ>

이라아(ㅅㅏ牙)<국(나).10:7ㄴ, 아.10:8ㄱ>
이라야(ㅅㅏㄱ)<국(나).2:15ㄱ>
이라야(ㅅㅏ也)<강.1:5ㄱ>
이라ᄒᆞ고(ㅅㅏㅅㅗㅁ)<강.2:38ㄴ, 국(나).2:6ㄴ, 아.2:6ㄴ>
이라ᄒᆞ나(ㅅㅏㅅㅛ尹)<국(나).2:21ㄱ, 아.2:21ㄱ>
이라ᄒᆞ니(ㅅㅏㅅㅣ)<국(나).1:9ㄱ, 아.1:9ㄱ>
이라ᄒᆞ니라(ㅅㅏㅅㅣㅅㅏ)<강.2:21ㄱ, 국(나).2:9ㄴ, 아.4:1ㄴ>
이라ᄒᆞ늬니(ㅅㅏㅅㅡㅣ)<국(나).2:22ㄴ, 아.2:22ㄴ>
이라ᄒᆞ더라(ㅅㅏㅅㅏㅅㅏ)<국(나).14:10ㄱ>
이라ᄒᆞ더시니(ㅅㅏㅅㅏㅅㅜㅣ)<국(나).9:14ㄱ>
이라ᄒᆞ며(ㅅㅏㅅㅛ)<국(가).4:9ㄱ, 국(나).4:9ㄴ, 아.13:7ㄱ>
이라ᄒᆞ시고(ㅅㅏㅅㅜㅁ)<아.9:13ㄴ>
이라ᄒᆞ시니(ㅅㅏㅅㅜㅣ)<국(나).1:6ㄴ, 아.1:13ㄴ>
이라ᄒᆞ시니라(ㅅㅏㅅㅜㅣㅅㅏ)<국(나).1:5ㄱ>
이라ᄒᆞ시다(ㅅㅏㅅㅜㅌㅏ)<아.4:7ㄴ>
이라ᄒᆞ야(ㅅㅏㅅㅓㅋ)<국(나).2:38ㄴ, 아.3:11ㄱ>
이라ᄒᆞ야늘(ㅅㅏㅅㅓㅋㄹ)<국(나).2:3ㄱ, 아.2:10ㄱ>
이란(ㅅㅏㄲ)<아.3:16ㄴ>
이러니(ㅅㅓㅣ)<강.4:7ㄴ, 국(나).2:23ㄱ, 아.3:2ㄱ>
이러니와(ㅅㅓㅣㅏㅌ)<강.2:21ㄱ>
이러라(ㅅㅓㅅㅏ)<국(나).6:6ㄱ, 아.3:14ㄴ>
이러시니(ㅅㅓㅅㅜㅣ)<국(나).4:7ㄴ, 아.6:5ㄴ>
이러시다(ㅅㅓㅅㅜㅌㅏ)<국(가).6:6ㄴ, 국(나).6:6ㄴ, 아.4:19ㄱ>
이로다(ㅅㅛㅌㅏ)<강.4:6ㄴ, 국(나).3:4ㄱ, 아.2:36ㄱ>
이로ᄃᆡ(ㅅㅛㄸㅣ)<국(나).2:1ㄴ, 아.1:8ㄱ>
이리니(ㅅㅁㅣ)<강.3:13ㄱ, 아.2:42ㄴ>
이리라(ㅅㅁㅅㅏ)<아.2:14ㄱ>
이리오(ㅅㅁㅛ)<강.4:7ㄱ, 국(나).1:16ㄴ, 아.1:16ㄴ>
이리오(ㅅ里五)<강.1:20ㄱ>
이리오ᄒᆞ고(ㅅㅁㅛㅅㅗㅁ)<국(나).14:12ㄱ, 아.14:12ㄱ>
이리오ᄒᆞ야(ㅅㅁㅛㅅㅓㅋ)<아.13:4ㄱ>

이리이다(ㅅㅂㅅㅏ)<아.8:2ㄴ>
이리잇고(ㅅㅂㅅ吃ㅁ)<국(나).5:9ㄴ>
이며(ㅅㅛ)<국(가).2:3ㄴ, 국(나).1:14ㄴ, 아.1:6ㄱ>
이면(ㅅㅓ)<강.2:9ㄴ, 국(가).1:8ㄱ, 국(나).1:9ㄱ, 아.1:9ㄱ>
이면(ㅅㅓㅁ)<강.2:24ㄴ>
이면(ㅅ面)<강.1:9ㄴ>
이사(ㅅ沙)<국(가).8:8ㄴ, 국(나).8:9ㄱ, 아.8:9ㄱ>
이사(ㅅ少)<국(나).11:8ㄴ>
이시니(ㅅㅅㅣ)<강.3:10ㄱ, 국(가).3:9ㄴ, 국(나).6:4ㄴ, 아.6:4ㄴ>
이시니라(ㅅㅅㅣㅅ)<국(나).12:1ㄴ>
이시니라(ㅅㅅㅣㅅ)<강.2:26ㄴ>
이시리오(ㅅㅅㅂ五)<국(나).4:8ㄴ, 아.5:10ㄱ>
이아(ㅅ牙)<아.11:8ㄴ>
이앤(ㅅㄱㅁ)<아.5:4ㄴ>
이야(ㅅ也)<국(가).3:27ㄱ>
이어늘(ㅅㅇㄹ)<국(나).4:7ㄴ, 아.9:10ㄱ>
이어니(ㅅㅇㅣ)<강.3:15ㄱ, 국(나).3:15ㄱ, 아.3:15ㄱ>
이어니와(ㅅㅇㅣㅏ)<강.1:8ㄱ, 국(나).1:8ㄱ, 아.1:10ㄱ>
이어다(ㅅㅇㅏ)<강.3:3ㄱ, 아.8:2ㄴ>
이어든(ㅅㅇㅗ)<국(나).3:5ㄱ, 아.2:1ㄱ>
이어시니(ㅅ戶ㅅㅣ)<강.1:9ㄴ, 아.2:14ㄴ>
이어시니(ㅅㅇ寺ㅣ)<강.1:9ㄴ>
이어시늘(ㅅㅇㅅㄹ)<강.2:4ㄱ, 국(가).2:4ㄱ, 국(나).7:11ㄴ, 아.2:4ㄱ>
이언마론(ㅅㅁㅓㅁ)<국(나).1:8ㄴ>
이언마은(ㅅㅁ馬ㅁ)<아.13:2ㄱ>
이언졍(ㅅㅁㅜ)<국(나).13:4ㄴ, 아.13:4ㄴ>
이오(ㅅ五)<강.4:12ㄱ, 국(나).1:5ㄱ, 아.1:21ㄴ>
이온(ㅅ五ㅁ)<아.4:13ㄴ>
이은(ㅅㅁ)<아.8:10ㄱ>
인대(ㅅㅁ大)<국(나).2:14ㄱ, 아.2:38ㄴ>
인대(引大)<아.3:12ㄱ>

인대(印ㄱ大)<강.3:12ㄱ>
인대(印大)<강.1:9ㄱ, 국(가).2:22ㄱ>
인댄(ㅅ大ㅁ)<아.10:10ㄴ>
인댄(ㅅㅁ大ㅁ)<강.3:2ㄴ, 아.2:9ㄱ>
인댄(引大ㅁ)<아.3:2ㄱ>
인돌(ㅅㅁ月)<국(가).3:23ㄱ, 국(나).3:24ㄴ, 아.3:24ㄴ>
인돌(ㅅㅁ月乙)<강.2:24ㄴ>
인져(ㅅㅁ广)<아.1:12ㄱ>
일씨니라(ㅅ乙ㅗㅂㅅ)<아.4:19ㄴ>
일씨라(ㅅ乙ㅗㅅ)<아.9:8ㄱ>
잇가(ㅅ叱可)<강.4:1ㄱ, 국(가).3:4ㄱ, 국(나).2:23ㄴ, 아.4:18ㄴ, 고.3:4ㄱ>
잇가ᄒᆞ노이다(ㅅ叱可ㅅ又ㅅ夕)<국(가).3:18ㄴ>
잇고(ㅅ叱古)<국(가).3:5ㄱ, 아.2:28ㄴ, 고.6:3ㄱ>
잇고(ㅅ叱口)<강.4:3ㄱ, 국(가).4:14ㄴ, 국(나).2:28ㄴ>
온/은(ㅁ)<강.1:5ㄱ, 국(가).1:3ㄱ, 국(나).1:3ㄴ, 아.1:3ㄱ, 고.1:4ㄴ>
올/을(乙)<강.2:40ㄴ, 국(가).1:6ㄱ, 국(나).1:6ㄴ, 아.1:6ㄴ, 고.1:6ㄱ>
져(氐)<국(가).2:28ㄴ>
져(底)<아.4:1ㄱ, 고.2:28ㄴ>
져(氏)<국(가).2:30ㄱ>
져(广)<강.2:30ㄴ>
져져(氏底)<국(가).4:1ㄱ>
져ᄒᆞ시니(氐ㅅㅎㅣ)<국(가).1:11ㄴ>
져ᄒᆞ시니(底ㅅㅎㅣ)<고.3:10ㄴ>
져ᄒᆞ시니(广ㅅㅎㅣ)<아.1:12ㄱ>
져ᄒᆞ시니(氏ㅅㅎㅣ)<국(나).1:12ㄱ>
져ᄒᆞ시니(广ㅅㅎㅣ)<강.2:30ㄴ>
커늘(巨乙)<국(가).6:6ㄱ, 국(나).6:6ㄱ, 아.6:6ㄱ>
컨대(巨大)<강.1:15ㄴ>
컨대(巨ㅁ大)<강.4:9ㄱ, 국(가).1:15ㄱ, 국(나).1:15ㄴ, 아.1:15ㄴ>
컨댄(巨大ㅁ)<아.2:21ㄴ>
컨댄(巨ㅅㅁ大ㅁ)<고.3:10ㄱ>

컨댄(巨ㅍ大ㅍ)<아.3:11ㄱ, 고.2:6ㄴ>
컨마론(巨ㅍㅇㅍ)<국(가).11:3ㄱ>
케ᄒᆞ노니(巨ㅅㅅㅈㅌ)<강.3:23ㄴ, 국(가).3:22ㄴ>
케ᄒᆞ더시다(巨ㅅㅅㅋㅅㅌ)<강.3:15ㄱ, 국(가).3:14ㄱ>
케ᄒᆞ더시다(巨ㅅㅅ加ㅅㅌ)<강.3:15ㄴ>
코<강.5:4ㄴ, 국(나).5:4ㄴ, 아.5:4ㄴ, 고.5:4ㄱ>
호니(ㅇㅌ)<강.서2ㄱ, 국(가).2:19ㄴ, 국(나).2:14ㄴ>
호니(ㅎㅌ)<강.3:14ㄴ, 국(가).3:11ㄴ, 아.4:14ㄴ>
호니(乎ㅌ)<고.3:14ㄱ>
호대(ㅎ大)<아.3:14ㄱ>
호ᄃᆡ(ㅇᄃᆡ)<강.1:20ㄴ, 국(가).1:19ㄴ, 국(나).1:9ㄴ>
호ᄃᆡ(乎ᄃᆡ)<고.3:26ㄱ>
호ᄃᆡㅎᄃᆡ)<강.3:14ㄱ, 국(가).1:9ㄱ, 아.1:9ㄴ>
호라(ㅇㅅ)<국(나).14:11ㄱ>
호라(ㅎㅅ)<강.3:4ㄱ, 국(가).3:4ㄱ, 아.7:11ㄴ>
호라(乎ㅅ)<고.5:8ㄱ>
호리라(乎ㅂㅅ)<고.7:11ㄴ>
호이다(ㅇㅅㅌ)<국(나).5:11ㄱ>
호이다(ㅎㅅㅌ)<강.5:11ㄱ, 국(가).5:10ㄴ>
호이다(乎ㅅㅌ)<고.5:7ㄴ>
혼대(乎ㅍᄃᆡ)<고.4:8ㄴ>
혼ᄃᆡ(ㅎㅍᄃᆡ)<국(가).11:4ㄱ>
혼져(ㅇㅍ氐)<국(나).4:20ㄴ>
혼지(ㅎㅍ地)<강.4:20ㄴ, 국(가).4:19ㄴ>
혼지(ㅎㅍ之)<아.10:14ㄱ>
혼지(乎ㅍ地)<국(가).10:13ㄴ>
히(尸)<강.1:18ㄱ>
히(屎)<강.2:15ㄱ, 국(가).1:14ㄴ, 국(나).1:15ㄱ, 아.1:15ㄱ, 고.1:14ㄴ>
ᄒᆞ고(ㅅㅁ)<강.2:2ㄴ, 국(가).1:1ㄴ, 국(나).1:1ㄴ, 아.1:1ㄴ, 고.1:1ㄴ>
ᄒᆞ고(ㅅ古)<강.1:9ㄱ, 국(가).3:14ㄱ>
ᄒᆞ나(ㅅ尹)<강.2:7ㄴ, 국(가).2:7ㄴ, 국(나).1:14ㄱ, 아.1:14ㄱ, 고.1:13ㄴ>

ᄒᆞ나(ㅅ나)<아.13:4ㄴ>
ᄒᆞ노니(ㅅᄀᆞᄂᆡ)<강.2:36ㄱ, 국(가).2:34ㄴ, 국(나).2:12ㄴ, 아.2:36ㄱ, 고.10:10ㄱ>
ᄒᆞ노다(ㅅᄀᆞᄐᆞ)<강.表 2ㄴ> 'ᄒᆞ노이다' 略?
ᄒᆞ노라(ㅅᄀᆞᅀᅡ)<강.2:14ㄴ, 국(가).2:14ㄱ, 국(나).2:14ㄴ, 아.2:14ㄴ, 고.5:2ㄱ>
ᄒᆞ노이다(ㅅᄀᆞㅣᄐᆞ)<강.4:1ㄱ, 국(가).4:1ㄱ, 국(나).3:19ㄴ, 아.7:11ㄴ>
ᄒᆞᄂᆞᆫ지(ㅅᄀᆞᄑᆞᄌᆡ)<아.12:1ㄱ>
ᄒᆞ니(ㅅᄂᆡ)<강.2:9ㄱ, 국(가).1:3ㄱ, 국(나).1:2ㄴ, 아.1:4ㄱ, 고.1:1ㄴ>
ᄒᆞ니라(ㅅᄂᆡᅀᅡ)<강.3:2ㄱ, 국(가).3:1ㄴ, 국(나).1:21ㄱ, 아.1:12ㄱ, 고.1:15ㄴ>
ᄒᆞ니라ᄒᆞ니(ㅅᄂᆡᅀᅡㅅᄂᆡ)<국(가).8:5ㄴ>
ᄒᆞ니라ᄒᆞ야늘(ㅅᄂᆡᅀᅡㅅᄀᆞᄅᆞ)<아.5:4ㄴ>
ᄒᆞ니이다(ㅅᄂᆡㅣᄐᆞ)<국(나).8:2ㄴ>
ᄒᆞ니잇고(ㅅᄂᆡㅣᄠᅡᄀᆞ)<고.4:14ㄴ>
ᄒᆞᄂᆞ니(ㅅᄆᆞᄂᆡ)<강2:11ㄱ, 국(가).1:18ㄱ, 국(나).1:3ㄴ, 고.1:4ㄴ, 아.1:14ㄴ>
ᄒᆞᄂᆞ니라(ㅅᄆᆞᄂᆡᅀᅡ)<강.2:2ㄴ, 국(가).2:2ㄴ, 국(나).2:10ㄱ, 아.2:2ㄴ, 고.2:2ㄴ>
ᄒᆞᄂᆞ니라ᄒᆞ고(ㅅᄆᆞᄃᆞᅀᅡㅅᄅᆞ)<아.1:20ㄱ>
ᄒᆞᄂᆞ니라ᄒᆞ니(ㅅᄆᆞᄃᆞᅀᅡㅅᄃᆞ)<아.2:20ㄱ>
ᄒᆞᄂᆞ니이다(ㅅᄆᆞᄂᆡㅣᄐᆞ)<국(나).7:12ㄱ>
ᄒᆞᄂᆞᆫ(ㅅᄆᆞᄑᆞ)<아.3:26ㄱ>
ᄒᆞ다(ㅅᄐᆞ)<강.3:16ㄱ, 국(가).7:11ㄴ, 국(나).10:12ㄴ, 아.2:2ㄱ, 고.2:2ㄱ>
ᄒᆞ다가(ㅅᄐᆞᄀᆞ)<강.2:22ㄱ, 국(가).2:21ㄱ, 국(나).2:22ㄱ, 아.2:21ㄱ>
ᄒᆞ대(ㅅᄃᆡ)<강.2:28ㄴ>
ᄒᆞ더니(ㅅᄀᆞᄂᆡ)<강.3:10ㄴ, 국(가).2:1ㄱ, 국(나).2:23ㄴ>
ᄒᆞ더니(ㅅᄀᆞᄂᆡ)<강.2:1ㄱ, 아.2:1ㄱ>
ᄒᆞ더라(ㅅᄀᆞᅀᅡ)<국(가).14:12ㄱ, 국(나).10:11ㄱ>
ᄒᆞ더라(ㅅᄀᆞᅀᅡ)<아.6:6ㄴ>
ᄒᆞ더시니(ㅅᄀᆞᄉᆞᄂᆡ)<고.3:14ㄱ>
ᄒᆞ뒤(ㅅᄉᆡ)<아.13:7ㄱ>
ᄒᆞ라(ㅅᅀᅡ)<강.1:19ㄱ, 국(가).1:18ㄱ, 국(나).1:19ㄱ, 아.4:19ㄱ, 고.5:3ㄱ>
ᄒᆞ라ᄒᆞ더시다(ㅅᅀᅡㅅᄀᆞᄉᆞᄐᆞ)<국(가).10:16ㄴ>
ᄒᆞ러시다(ㅅᄒᆞᄉᆞᄐᆞ)<아.6:6ㄱ>
ᄒᆞ리니(ㅅᄆᆞᄂᆡ)<국(가).2:5ㄱ, 국(나).2:5ㄴ, 아.2:41ㄱ, 고.2:5ㄱ>

ᄒᆞ리니(ㅅ里ㅣ)<강.2:5ㄴ>
ᄒᆞ리라(ㅅㅁㅅ)<강.3:2ㄱ, 국(가).3:5ㄱ, 국(나).3:13ㄴ, 아.3:13ㄱ, 고.5:3ㄱ>
ᄒᆞ리라ᄒᆞ니(ㅅㅁㅅㅅㅣ)<국(가).8:7ㄱ, 국(나).8:6ㄴ>
ᄒᆞ리라ᄒᆞ며(ㅅㅁㅅㅅㅛ)<국(나).8:6ㄱ>
ᄒᆞ리이다(ㅅㅁㅣㅿ)<국(가).8:2ㄴ>
ᄒᆞ릴ᄉᆡ(ㅅㅁㄹㅿㅣ)<국(가).2:9ㄱ, 국(나).2:9ㄴ>
ᄒᆞ릴씨(ㅅ里ㅿㅣ)<강.2:9ㄴ>
ᄒᆞ며(ㅅㅛ)<강.1:1ㄴ, 국(가).1:1ㄴ, 국(나).1:1ㄴ, 아.1:23ㄱ, 고.1:4ㄱ>
ᄒᆞ면(ㅅㆍ)<강.2:30ㄱ, 국(가).1:7ㄴ, 국(나).1:14ㄱ, 아.2:1ㄱ, 고.1:19ㄴ>
ᄒᆞ면(ㅅㆍㅁ)<강.1:14ㄱ>
ᄒᆞ면(ㅅ面)<강.2:1ㄱ>
ᄒᆞ샤(ㅅ金)<강.3:25ㄴ, 국(가).1:4ㄱ, 국(나).1:4ㄱ, 아.1:4ㄱ, 고.1:4ㄱ>
ᄒᆞ샤ᄃᆞᆯ(ㅅㅅㅌ)<국(가).2:3ㄴ>
ᄒᆞ샤ᄃᆡ(ㅅㅅᄼ)<국(가).1:14ㄴ>
ᄒᆞ샤ᄃᆡ(ㅅ金ᄼ)<강.2:14ㄴ, 국(가).2:14ㄱ, 국(나).2:14ㄴ, 아.2:14ㄴ, 고.4:7ㄴ>
ᄒᆞ샤ᄃᆡ(ㅅ金代)<국(가).3:14ㄴ>
ᄒᆞ쇼셔(ㅅ小西)<아.9:5ㄴ>
ᄒᆞ시고(ㅅᄉㅁ)<강.3:15ㄱ, 국(가).3:14ㄱ, 국(나).2:27ㄴ, 아.3:15ㄱ, 고.5:10ㄴ>
ᄒᆞ시고(ㅅᄉ古)<강.2:27ㄴ>
ᄒᆞ시니(ㅅᄉㅣ)<강.서5ㄱ, 국(가).1:4ㄱ, 국(나).1:4ㄱ, 아.1:4ㄱ, 고.1:4ㄱ>
ᄒᆞ시니라(ㅅᄉㅣㅅ)<강.1:20ㄴ, 국(가).1:4ㄱ, 국(나).1:4ㄱ, 아.1:4ㄱ, 고.1:8ㄱ>
ᄒᆞ시ᄂᆞ니라(ㅅᄉㅌㅣㅅ)<국(나).11:2ㄴ>
ᄒᆞ시다(ㅅᄉㅿ)<강.2:15ㄱ, 국(가).14:11ㄱ, 국(나).2:15ㄱ, 아.2:15ㄱ, 고.9:7ㄱ>
ᄒᆞ시며(ㅅᄉㅛ)<국(가).6:5ㄴ, 국(나).6:6ㄴ, 아.6:6ㄱ, 고.11:6ㄴ>
ᄒᆞ시면(ㅅᄉㆍ)<강.표2ㄱ, 국(가).表 2ㄱ>
ᄒᆞ신대(ㅅᄉㅁ大)<국(가).7:11ㄱ, 국(나).4:2ㄱ, 아.7:11ㄴ>
ᄒᆞ신대(ㅅ申大)<고.7:11ㄱ>
ᄒᆞ실제(ㅅᄉㄹㅈㅣ)<고.4:7ㄴ>
ᄒᆞ야(ㅅㅋ)<강.서1ㄱ, 국(가).1:1ㄴ, 국(나).1:1ㄴ, 아.1:1ㄴ>
ᄒᆞ야(ㅅ也)<강.1:8ㄱ, 아.2:9ㄴ, 고.1:1ㄴ>
ᄒᆞ야ᄂᆞᆫ(ㅅ也ㅌㅁ)<아.5:13ㄴ>

ᄒᆞ야ᄂᆞᆯ(ㅅㄱㅌ)<국(가).1:14ㄱ>
ᄒᆞ야ᄂᆞᆯ(ㅅㄱㄹ)<국(가).1:14ㄱ, 국(나).14:12ㄱ, 아.5:7ㄱ>
ᄒᆞ야도(ㅅㄱㄲ)<강.2:6ㄴ, 국(가).2:6ㄱ, 국(나).2:6ㄴ>
ᄒᆞ야도(ㅅㅿㄲ)<아.2:6ㄴ, 고.2:6ㄱ>
ᄒᆞ얀(ㅅㄱㅍ)<강.2:22ㄱ, 국(가).2:21ㄱ, 국(나).2:22ㄱ, 아.2:22ㄱ>
ᄒᆞ얀(ㅅㅿㅍ)<아.1:22ㄴ, 고.1:20ㄱ>
ᄒᆞ얀지(ㅅㄱㅍ地)<국(가).2:17ㄴ>
ᄒᆞ이다(ㅅㅅㅏ)<국(가).6:4ㄱ, 국(나).6:4ㄱ, 아.6:4ㄱ, 고.6:4ㄱ>
ᄒᆞᆫ(ㅅㅍ)<아.5:7ㄱ>
ᄒᆞᆫ대(ㅅㄱ大)<강.1:19ㄱ>
ᄒᆞᆫ대(ㅅ大)<강.2:28ㄴ>
ᄒᆞᆫ대(ㅅㅍ大)<강.3:10ㄴ, 국(가).1:18ㄱ, 국(나).1:19ㄱ, 아.1:19ㄱ, 고.1:18ㄱ>
ᄒᆞᆫ져(ㅅㅍ氏)<국(나).2:18ㄴ>
ᄒᆞᆫ지(ㅅㅍ地)<강.5:9ㄱ, 국(가).5:8ㄴ>
ᄒᆞᆫ지(ㅅㅍ之)<아.5:9ㄱ>
ᄒᆞᆯ식(ㅅㄹ士ㅅ)<강.3:4ㄱ, 국(가).3:3ㄴ>
ᄒᆞᆯ제(ㅅㄹ士ㅅ)<국(가)·국(나)·아.7:11ㄴ, 고.7:11ㄱ>